

지대방 사람들

정치수배 해방 III

## 경기도에서 북괴를 기피하기 위해 9/10일경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서

민 집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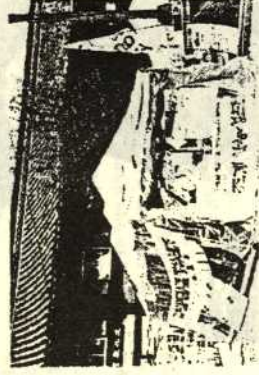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풍경이 서른다. 또기었던 7월 부민가 농성자로 복역한다. 퇴출 외사하고 노동자들 갖게 자립은 또 다른 농성자들 바로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다. 8월 9일 농성을 시작하여 9월 10일 11일로 64입자를 맞고 있다. 그들은 왜 이 곳에 있는가 우리의 함께 강의를 오기며 대학생활을 보낼 그 들이 말이다. 그들을 찾아 나섰다. 조계사 대웅전 앞 마당 한 잔막으로.

**천막**으로 향하는 길, 그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농성자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총무 원 건물 화장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그들이 빗길 올렸을 마당을 밟고 간다. 조계사에서 힘쓰는 일이 라면 농성단의 손길이 닿지 않을 리 없을 제다. 조계 사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서 못하는 그들은 조 게 분명하다.

뜨거운 여름 더위를 쫓느라 지붕만 남겨놓고 사방 을 휘박 걸어 놓았던 천막이 어느새 겨울 준비로 두 더운 천을 입히고 비닐 여러 겹을 대놓아 푼분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배자, 8명이 산다. 6년을 도망다녔던 사람, 3년을 해면 사람, 1년을 외롭게 혼 자 버티왔던 사람들이 있다.

여차도 한 명 있다. 30살이 넘어선 사람도 있다. 얼굴은 무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도 있다.

일요일, 찾아온 손님들과 정겹게 얘기 자기서 동 글게 모여 앉아 얘기를 하고 있다. 형님이 찾아왔다. 안양대학생들이 왔다. 선배들이 있다. 책을 읽고 있 는 사람도 있다. 농성단의 모든 것을 써오려는 사진 작가도 있다. 외대 영상단도 와있다.



조계사에서 정치수배자를 위한 농성단의 숙소 천막

오경규, 그는 93년 전남대학교 송학성회장과 남중 련 의장을 맡았다. 고려대에서 일했던 1기 한송련 출 범식에서 조선 학생위원회와 남, 북한 청년학생 체 육교류를 제안하는 진화 통화가 바로 범외(?)의 시 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86학번, 올해로 6년째 수배생활. 그의 아버님은 진교조 활동을 해왔던 후 민족민주운동을 하시다 3년 옥고를 치르신 오주 율 선생님이시다. 형동이 정규씨는 93년 전남대 공대 학생회장 활동하던중 수배자가 되어 3년을 도망다녔 다.

**유병문**, 96년 동국대학교 송학성회장과 4기 한송 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9월에 시경 '양수리'에 서 '볼 볼 내기 시인이기도 하다. 96년 연세대 사진 의 주동자(?)로 경찰이 즐기치게 찾아 해했다. 그의 애인은 그를 도왔다. 이유로 구속된 채도 있다.

**김민근**, 5기 한송련에서 연대사업위원회 농민구 사업을 했다. 서울농대 87학번. 할지 않은 운동 경력 때문인지 몰라도 살이라고 불어있는 구석이 없다.

**엄동철**, 97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연행되었다가 풀려나 계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진교대 농대 외학 반, 농촌 총각처럼 구수하고 순박해보이는 청년이다.

**김성숙**, 5기 한송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 97학번. 가남본 미인형이라고 경찰이 수배전단에 명 시한 덕에 지금까지 잡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마디 거 든다.

**김재도**, 5기 한송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 97년 서울농대 회장, 남부총련 권선대행, 91학번, 제법 장한 얼굴에 새하얀 피부. 그래서인지 질문을 당해 본 적이 없었다.

**이영수**, 5기 한송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 서 울농대 부학생회장, 91학번, 10월 22일 형수님이 고문 관자가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소개되어 고향인 김 북 명원시내는 한 때 떠돌려했다고 한다. 농성단 비

남으로 알려진 섬세한 청년.

중은 5기 한송련 대의원. 97년 인천대 인문대 회장. 91학번, 컴퓨터 통신 구축구역을 뒤지며 수배 해져 투쟁을 알리는 사람. 97년 명동성당 처사를 부 평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엘베노의 사무총장과 농성단이 함께한 자리

이렇게 8명이 모여 산다. 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를 나눴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와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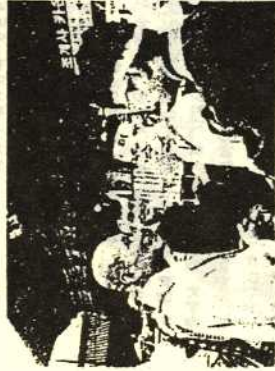
-이곳에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장규형이 4월부터 전남대 수배 해제 모임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친국의 수배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남대로 찾아왔습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수배해제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수 배해제 방법을 고민하다가 조계사로 들어오게 되었 습니다.

-농성장소가 조계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97년도에 수배자들이 연세대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대학에 경찰들이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 지대방 사람들



지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농성단 식구들

은 대학에서 수배자들이 농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니고, 명동성당에는 이미 많은 농성단이 활동 중이 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배자들이 그 곳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농성단 속에 한무리로 묻힐 가능성도 있구요.

-농성단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수배해제입니다. 김영삼정권 때도 30여명 수 배자들을 수배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천두환, 노태 우 전리대통령도 풀려났습니다. 김영삼정권의 실경 에 맞서 싸워온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범죄자 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독재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정치, 사상, 결사, 표현, 출 판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양산된 수많은 양심수, 수 배자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부인 것 아닙니까?

-하루 생활이 궁금합니다.

5시30분 일어나서 108배 용역정권과 마당 청소, 국 신도를 합니다. 아침 식사후에 아침 조식을 하고 각 자의 맡은 일을 하죠. 침실 밖고는 대부분 지지 방법



명을 받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중 집회를 8월 22일에 가졌고, 9월 13일 '양심수 와 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진행하였습니 다. 7백여명이 모인 성과적인 집회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식이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한정합니다. 김 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수배가 풀릴 줄로 기대했던 부모님들은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하십니다. 부모님 모임을 3차례가 가졌고 법무부 감사와 면담, 민가협 진보 참서, 한송련 학부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행위 토론 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조계사에서 생활이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서명운동, 친척 단원서 각인, 대통령에 탄원 편지도 쓰였습니 다. 남재가 추워지는데 생각보다 농성생활이 길어지 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양도 없이 일주일도 못 수 있었을 때에 비하면 좋다고 하세요.

10월에는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가족협의회 를 결성합니다.

불고에 대해 깊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연스러움'과

'개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은

'스스로의 참신'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2월 인권법 제정과 11, 12월 여러 사회단체들이



준비하는 투쟁구면에 맞는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인권대통령, 인권법률 통과를 팔하면서 양심수와 수배자를 이 아귀에도 손제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지 결코 용감, 용치권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대회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18일 수배자 가족협의회와 가족회와 함께 고인 대규도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인연이라 할 수 있는데. 병문이 행동 제외하고는 특별히 불교와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불교에 대해 깊이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연스러움'과 '개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은 스스로의 참신'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끌립니다. 성지포만 여기저기 생활에도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생활하면서 불교의 정신, 스님의 말씀, 불자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농성단과 대법원 직원들은 연변의 위저리리를 가졌다. 농성단 활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대법원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렸던 저리, 나이에 맞지 않게 발달하고 진지한 사람들, 대법원 사무실에 는 의사준비와 몸을 썼는 농성단 직원들이 언제나 있다. 어느 생가 친해지고 익숙해진 사람들. 그들이 하루 별리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리를 자유롭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결혼도 하고, 부모님 장거리도 봐드리고, 대학 교정을 거리낌없이 확보하며, 운동하는 삶에 덧붙여 세 세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첫이' 평평 쏟아지는 날에 농정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민정**

이글은 10월 2일 MBC라디오 '여성시대'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농성단 이영수의 형수님과 아버지님 글입니다.



손숙 김승연씨 인병하에 온

저는 경북 영천에 살고있는 김매경입니다. 95년에 결혼해 지금은 여기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일로 자식을 공부시키시고 동네에서도 인신공고 점이 많으신 소박한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건에 그대로 자식 교육받은 시키셨고 나더 나더 좋아하시며 시골마을에 다니는 여느 노년같은 우리 시부모님의 자상이었습니다.



조계사에 방문한 부모님과의 만남

로내 추시기를 이렇게 부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저는 97년 한중전 제 5기 때 서용대 농대 부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차년부터 수배를 받고있는 이영수의 아내입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등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당당한 이 신정을 어떠한 비록 중사 강려 대통령님께 몇 자 편지려 합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97년 전에도 농부, 지금 1999년에 도 농부 모지 농촌에서 불과 함께 제 인생을 뽐수니다. 영수는 그런 저의 다섯 자식 중 막내입니다. 처음 대학원시를 볼 때 농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는 무언의 약했었습니다. 저 하나 흠을 피고 싶었으면 될 지 지시만은은 그러지 않기 바랬습니다. 딸지 아닌지 너무나 하찮고 착기 때문이었습니다. 극구 말하하면 제게 '농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께 어머니에게 지금의 이 부부의 아들이기에 어머니께 어머니께 어머니께 지금의 좋은 농촌으로 대우받은 채 순으로 받으시 사기 저속 서투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낮게 모였이 되며 착한 아이

8.15 때는 살던터도  
국민의 돈을 수십억 팔랑팡지도  
도둑질을 한지도  
모두가 사면이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람들보다 재작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 자강 영수는 행적이 들지 않아 낮에도 복을 받고 싶어만 하는 지하 양양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고 영신의 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부고 제사 날, 생일, 오네기 때, 시와 수박기에는 매년 집에 와서 집안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집에 전한은 물론이거니와 다너까지도 못했습니다. 떠나려면 학생회 강부사는 이유가 있음이 되어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안 양심수 전원해방을 약속하시지 않았던가요. 수배생활 시작 후 친구에 전화도 안하던 아들 녀석이 사육이 먹다하고 친해해서는 '엄마, 아버지 저를 생 각한다면 김대중 선생님을 대통령 뽑으세요' 그렇게 선거공약을 하던 영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치게 믿고 또 믿었던 대통령님이 되신 지 만 믿이 지냈는데 아직도 제 아들은 1년 전과 같이 변함없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다녀 수가 없습니다. 때 끼니마다 밥을 제대로 먹은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과 풍 성을 어머니 처친하고 가슴이 텅

저를 서울대 단과대학의 부학생회장이 되었을때도 이트라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업에서도 좋은 성취를 올리며 항상 어긋남이 없던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들에게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항상 영준처럼 고 손수하던 도련님이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중전(한중대학 융합생리대학) 대외원이라는 이유 그것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진리를 때 도련님은 병학 때 집으로 내려오곤 했지만, 농사생활을 영여놓고 하능의 벽을 보고 밭을 뒤에 많이 노는 강릉을 떠나고머 생각이 잘겨있는 도련님의 모습을 언제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자신보다 오히려 어려운 사상을 더 생각하면 도련님이 저는 서용대에 간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좋아합니다. 처음 서용대 영대대학의 부학 생회장이 되었을때도 이른바이므로 생활비를 마련 하고 학업에서도 좋은 성취를 올리며 항상 어긋남이 없던 도련님이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섣달의 촌재를 작 으고 있습니다. 기안 얘기때 보고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섣달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색해하던



해제는 웃음과 젊은 열기가 느껴지는 모습에서 이들이 저들과와 자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얘기가 풀려 한 투쟁기간에 정이 들어 가려는 상흔과 떨어지지 않고서도 한창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아픈편지...

영적대면 언제나 담고기를 옮겨먹고하던 도련님께 이번 추석엔 꼭 제가 담고기도 먹여주고 우리 애 기양 사신도 찍어주고 싶었는데...

다가오는 음력 9월 18일은 우리 도련님 생일날이고 또 10월 18일은 우리 시아버님 환갑날입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도련님이 하루 백년 양신 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평생을 양신 자식들에게 따뜻한 양을 헌터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무너져는 억압에 평생 처음으로 남용내 쓰신 편지를 읽고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숙 김승연씨

우리 도련님의 양이 아니라 생각되기에 우리 시아버님의 편지를 이렇게 함께 동봉하니 두분의 따뜻한 응성으로 읽어주시고 또 꼭

빈 못 하던지? 제 아무나 없이는 음식, 풀은 것을 처도 좋겠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의 신정을 아시려는지 모르지는 못하 그 신정, 수배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식의 신정, 지난 1'밖에 동안은 도무지 복안하고 말았하고, 안타까운으로 가슴이 시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문의 신정을 아니 자식의 신정까지도 대동정에서는 작 아시려나 믿습니다.

제 아들은 사상을 추이러도 않았으며 냇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며 이 나날을 천억의 경제위기 상 할까지 애통지도 않았습다. 8.15 때는 삼민라도, 국어의 돈을 수십 억 할정한 차도, 도둑질을 한 지도 모두가 사면이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람들보다 제 자식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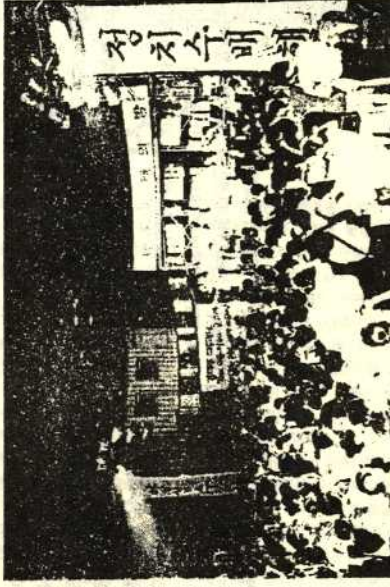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몇년에는 아들을 생각하며 민 하 농을 바나고머 공사들을 부끄러웠, 이번 추석에는 꼭 자식들과 함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문도 함께 각 수 있게 채 주십시오. 제 아들이 편안히 있을 수 있게 이 애비의 꿈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제 먹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 청합니다. 그러면 아들 할중에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1999년 9월 18일 수배자 영수 아내 송신

농성단 활동보고

- ▲ 4월 전남대에서 정기수배해제 모임을 만들어 서영, 탄원서, 모금 활동보고 등을 발인
- ▲ 5월 전남대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
- ▲ 8월 9일 조계사에서 7명의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농성 시작
- ▲ 10월 8.15 시일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 12월 전교 스님, 권오현 민기협 회장, 홍근수 목사, 오종필 전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등이; 새정치국민회의 정준환 사무총장, 한화강 원내총무, 검찰총장의 연담진행
- ▲ 12월 수배자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민기협 등화 참가
- ▲ 14일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광고를 일간지 하단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정기수배 해제를 위한 양심수 전원해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전면(한겨레 신문 9면) 게재

- ▲ 조계사를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활동 벌임
- ▲ 70여명에 이르는 수배자 명단 파악
- ▲ 8.15 특별시연을 규원하는 성명 발표
- ▲ 18일 8.15이후 활동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기진
- ▲ 22일 전국연합, 민가협 등 사회단체 어르신과 학생, 노동자 300여명이 참가한 "정치수배해제 앞장"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진행
- ▲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100배 용맹장진 시작
- ▲ 유시춘, 모 정당인이 참여한 정부당국의 실무자와 진관스님, 오영식(진대협 2의장), 김제웅(한총련 1의장) 신배님들이 참여한 농성단 대표와 4체에 걸친 대화를 가짐
- ▲ 7일 수배자 추가 결합 (홍준호, 인천대)
- ▲ 타블로이드 신문 연부를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선전
- ▲ 9월 10일 국제텔레비전 시무총장 피에르 사네 등 방한단 농성단 방문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지원 석방의 서면과 환담을 가짐
- ▲ 9월 12일 '양심수지원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

한 하루주야' 울 동국대에서 개최

- ▲ 9월 12일 사회단체 어르신과 700여명의 참가자를 이 모인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양심수 지원'을 주제로 한 '한 하루주야'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개최
- ▲ 10만 서명운동을 북극로 전국의 각 대학과 거리에서 서명운동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월 16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음
- ▲ 친지 가족을 비롯하여 명망있는 사회인사와 교수님들로부터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 9월 24일 수배자부모님, 인가협어머님, 도관 스님, 김재웅(한총련기외장) 등이 법무부를 방문하여 방영관 검찰 3과장을 면담하였고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 제출
- ▲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담당자와 실질적인 수배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
- ▲ 10월 16일 민중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개최
- ▲ 농성단 석방시 진행.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

"올 추석 댄 부모님과 함께 해야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어느 화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조계사에 들어가는 길은 곳곳에 배치된 전부경찰로 인해 긴장감이 짙다.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면 한 칸에 갇힌 마히게 둘러쳐진 친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친박에서는 김영삼 정부시절의 정치수배자 7명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와 실정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수배의 물이 된 55명의 수배자들

은 자유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농성단 대표 오창규 군(93년 우리대학 총학생회장·남총련 의장)은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농성사유를 밝힌다. 오군은 이어 덧붙여 "국민대회합이란 미명 아래 전두환·노태우 씨는 준법사익도 없이 풀어주면서,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는 김대중 정부의 처사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실제로 이번 8·15 사면은 농성단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주었다. 양심수에 대한 실질적 사면·복권은 고사하고 대부분이 가석방·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를 받게된 김재중 군(서울농대 회장·94)은 "지난 8·15사면에서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자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쉬워 한다.

97년 한총련 언론대변인 사임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게된 딸을 자수시키려다 오히려 농성단의 실력과 눈물을 보고 돌아서야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에 물과 눈물을 흘리던 김성숙 양(우리대학·기안·95졸). "집에 못 들어가간지 벌써 5년째네요. 올 가을 추석엔 꼭 부모님과 함께 해야죠"라며 고된 하루 일정도 불구하고, 불합편을 서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한 수배자. 이들은 '이적·폭력'으로 매도된 범죄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소중한 아들·딸들이었다.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화려한(?) 경력 이면에는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시없는 갑오 생활을 하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의 예환이 담겨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수배의 몸이 되지 않아도 될 날을 그리며 김대중 대통령의 조속한 정치수배해제 조치를 기대해 본다. 김효섭 기자

홍대신문

사회보도/ 조계사 수배해제 농성단

"통일 단결로 암울한 우리세대 종결짓자"

실질적인 사회복귀 보장하는 조건 협상중, 정치수배자 재생산 구조여전해

내정부가 특이선지 법적 6개월이 지났지만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된 정치수배자 7명은 수배해제 쿠폰 요구하며 23일째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다. 오창규(93년 남총련의장, 전남대)군을 비롯한 6인 김현곤(5기한총련연사위원장, 서울대), 유병문(4기한총련조동위원장, 동국대), 협동철(전국대), 김성숙(5기 한총련 언론대변인, 전남대), 이영수(5기한총련대의원, 서울대), 김재중(5기한총련 대의원, 서울대)은 지난 8월 9일(목) 조계사에 들어와 김영삼 사석 양산원 56명의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배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농성단을 결성한 이유에 대해 오창규군은 "기류 이시전에도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하여 수배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번 수배해제 농성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깨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로 이어지는 중심을 가진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실제로 조계사에 들어가 보니 도시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고립되어 고독과 시름하고 부모님, 친구들에게 연락도 못하던 때 보다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 기분이 좋다고 말한다.

농성단은 김영삼 정권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 해제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 귀환 위해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



동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조차 나무 놓인다는 농성단원들

인 기준 마련 강위된. 정명기, 정대홍 한총련 전임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5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법리적 제김도 6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유보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차별적인 5기 대의원 선거는 초법적인 인권탄압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의 대시대에 맞지 않으며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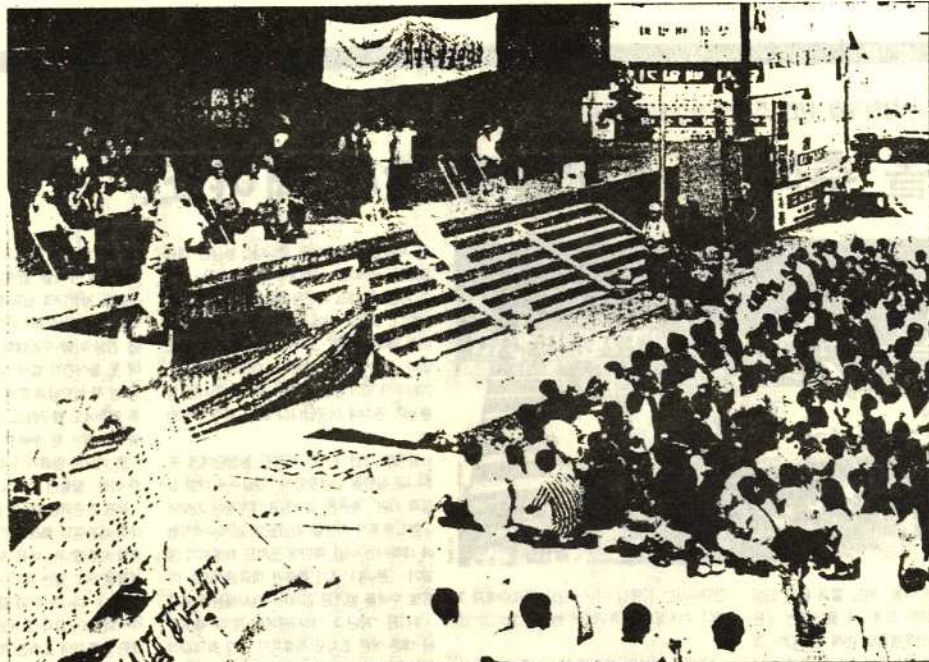
은 국가보안법을 철폐 혹은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촉구했다.

실질적인 수배해제인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정부측과 협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15특사를 앞두고 종교인권 사회단체 5-6인은 국민회의와 경찰측에 수배해제를 거론했으나 화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농성단은 대중적으로 정치수배해제를 일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상층의 협상

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2차 투쟁을 진행중이다. 오는 26(토)일까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는 13일(일)에는 군중예술행을 선보일 수 있는 조계사 예술제를 열 예정이다.

전대협 동우회 실무자, 이덕우 변호사, 권광스님, 정당의 입장을 일정정도 반영하는 국민회의 인권위등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청와대의 정책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검찰, 청와대 관계자와 협상하고 있다. 오창규군은 "최소한의 양심과 지존만 지킬 수 있다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사면해결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생운동의 가기에 대해 반성한다. "못 못했다"라는 내용이 강요될 경우 전체 학생운동이 예도될 수 있다면서 원칙적인 부분엔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찾아와 줄 때 가장 힘 필요요" 보안수사대 전담반의 위협에 밤잠을 설치고 밤잠에 걱기는 가을밤 풍기도 힘겹지만 학우들의 지지방문이 많이 힘이 된다고 농성단원들은 이구동성이다. 오창규 군은 "17가 지금이라도 파단일 있게 개혁한 한다면 나도 그 안에서 못나서 지지천하고 싶다"면서 학생들에게 "통일단결! 우리의 암울한 사태를 종결! 할 수 있다"고 디뎌 사는 자세를 당부했다. 류성현 기자



지난 22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치수배해제·양심수전원석방·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결의대회'가 열렸다.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금속노련 노동자, 대학생 등 각계 민주인사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희 기자

서울여대 학보

제358호 1998년 8월 24일 (월요일)



### 사람 세상

#### 조국을 사랑한 죄

발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YS정권 시절 정치수배를 당하고 사면에도 제외된 우리의 청년들이다 눈을 감으면 부모님 생각, 친구생각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평범한 그들이 조국을 사랑한다는 죄로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토) 조계사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김은영 기자

정치수배 해제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

## '국민의 정부', 부당한 수배조치 해제해야

서명운동·탄원서 제출 등 여론화 작업 진행 계획

항쟁에 매여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조계사에서 10일째 '정치수배 해제'를 외치며 농성 중인 오창규(신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김현근(서울대 농학과), 유병문(동국대 불교학과) 등 정치수배자 7명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그들은 식사 때 찾아온 손님에게 같이 툇기류 권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김영삼 정권의 실정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됐다. 농성단장인 오씨는 "현재 국민 대다수는 김영삼 정권이 양치놓은 국가 상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국보법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국보법이 국민의 소지가 많아 철폐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양산된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농성단은 지난 10일에 8-15 사면에 정치수배 해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4일에는 농성 중인 수배자들의 각 학교 후원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광고를 모 일간지 하단 전면에 게재해 그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조계사를 찾는 신도와 농성중인 수배자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가 된 7명이 모여 지난 9일부터 현의 농성을 시작했다. 노시태 기자

그동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됐으나 정치수배 해제를 외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그들은 학생운동 관련 정치수배 해제 5기 학생운의 이거 규정 제정도 및 6기 한총련 대의원 선거 중단, 국보법 철폐 등을 구호로 농성에 돌입했다. 오 단장은 "수배생활로 서로 떨어져 지내며 도피생활을 하는 가운데 연락을 위해 농성단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작업이었다. 이렇게 7명이 모여 농성을 시작했으나 적어도 20여명은 모여야 우리의 주장이 대표성을 띌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지난 9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아침 6시에 기상해 '예배, 운동, 식사 준비'의 3개조로 나눠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 후에는 조의를 통해 토론과 일정 점검을 한다. 오 단장은 "조외 이후에 방문자들이 찾아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는 그 맛을 살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농성단은 이제 다음 달 26일까지 2차 투쟁을 전개한다. 서명 운동, 탄원서 제출, 후원의 조직 및 등을 통해 대중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외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 인사들로 협상단을 구성해 정치수배를 압박하기로 했다. "수배가 해제되면 수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달려가 복수 작업을 하면서 세 살밭의 결의를 다지고 싶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권의 타산적인 정책에 밀려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뿐이다" 오 단장의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이 농성단의 천막 앞쪽 지나는 신도들이 합창을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도들의 마음속에 서 말풍선 그들은 더 이상 수배자가 아니었다. 김천오 기자

동대신문 8월 31일자

## 정치수배 해제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농성단 협상진행 ... 정부의 호의적 조치 기대

정권상 정권시절의 학생운동 정치수배자 7명이 지난 9일부터 '정치수배 해제'를 외치며 농성 중인 오창규(신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김현근(서울대 농학과), 유병문(동국대 불교학과) 등 정치수배자 7명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그들은 식사 때 찾아온 손님에게 같이 툇기류 권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김영삼 정권의 실정에 맞서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됐다. 농성단장인 오씨는 "현재 국민 대다수는 김영삼 정권이 양치놓은 국가 상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국보법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국보법이 국민의 소지가 많아 철폐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양산된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농성단은 지난 9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아침 6시에 기상해 '예배, 운동, 식사 준비'의 3개조로 나눠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 후에는 조의를 통해 토론과 일정 점검을 한다. 오 단장은 "조외 이후에 방문자들이 찾아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할 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는 그 맛을 살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지난 22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중 수배자들이 특명하고 있다. 유영주 기자

농성단은 이제 다음 달 26일까지 2차 투쟁을 전개한다. 서명 운동, 탄원서 제출, 후원의 조직 및 등을 통해 대중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외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 인사들로 협상단을 구성해 정치수배를 압박하기로 했다. "수배가 해제되면 수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달려가 복수 작업을 하면서 세 살밭의 결의를 다지고 싶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정권의 타산적인 정책에 밀려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뿐이다" 오 단장의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이 농성단의 천막 앞쪽 지나는 신도들이 합창을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도들의 마음속에 서 말풍선 그들은 더 이상 수배자가 아니었다. 김천오 기자

인터뷰-조계사농성단 단장 오창규씨를 만나



1. 조계사 농성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 가장 큰 목적은 정치 수배 해제이다. 전직 두 대통령은 국민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양심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것은 본 명 실정상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이다. 고도소안에 갇혀있지 않을 뿐 창살 없는 감옥생활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2.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전개해 왔는가?  
 - 8월 9일 조계사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3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8월 14일에는 수배자 가족 모임을 가쳐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8월 22일에는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및 인권신장을 위한 대중적 행사로 집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후원회 확장, 모금활동과 서명운동 등을 문제로 해결될 그날까지 힘있게 전개할 것이다.

"맘편히 수업도 받고 멋진 논문도 써왔으면..."

3.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펼칠 것인가?  
 - 37가지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대중전이다. 현재 후원자가 50여명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후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수, 시민, 학생,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후원회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일주파를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는 언론전이다. 지금까지 시사잡지인 「말」이나 「길」지 그리고 후원회 창간호로 개재한 광고(8월 14일자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홍보해왔지만 아직 미흡하게 많다. 앞으로 대학신문, 일간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치수배해제의 당위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셋째 상층 정치협상전이다. 이번엔 동우회 산하들이 실무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진관스님, 이동우 민변변호사, 민가철 어머니들, 천주교 인권연맹 등은 협상단을 결성하고, 국민회의와 인권위원회의와 오빠까지 4차례의 합의를 진행하였다.  
 4. 농성활동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찬 등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오히려 수배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져 농성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우려가 된다.  
 5. 수배생활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 올해로 6년째이다. 구체적으로 93년 고대에서 한총련 출범식이 있던 해 남총련 의정직을 맡았다. 당시 북한 청년학생위원회의 한 학생과 친화봉사를 함께 수배인이 되었다. 수배생활을 하는 중 졸업도 했고 대학원도 진학하게 했는데 빨리 수배가 해제되어 단편이 수업도 받고 멋진 논문도 써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6. 월 김대중 정부에 바라는 점은?  
 -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현실과 모순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일단은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실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끊임없는 개혁을 단행해 주었으면 한다.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세가 너무 혼란이 어떤 한기가 있을 시작하는데도 많은 고민이 따른다. 일단, 옛동지의 부모님, 후배, 벗우들을 믿고, 이 나라의 양심인사와 단체들을 믿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성급한 주시고, 믿음과 사랑 보내주시는데 힘을 얻고 보람도 느낀다.

(윤경만 수습기자)

사설

조건없는 수배해제, 전면적인 양심수석방

요즘 같은시대에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 꿈을 잃 수 없는 경기 침체가 당장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을 예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여 파로 각 대학가에서는 오로지 고시공부에만 매달리는 기형적인 학업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 산다는건 어떤걸까? 단언하건데 거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아무리 새롭거나 예외적이더라도 자기에게 제시 된 사실을 어떤 것이든 기꺼이 받아들여 숙고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 - 프로이트가 '지성'에 대해 정의내린 문구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아무리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해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그동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새로운 사실이라해도 정부는 기꺼이 받아들여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성'을 갖추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어떠한가? 매년 학생들이 의해 자체적으로 선출되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한총련 이적규정' 때문에 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조계사에서 지난 8월8일(토)부터 국가보안법안으로 김영삼 정부에 수배조치를 당한 한총련 관계자 8명이 농성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지금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정치수배 해제와 불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농성 36일째인 지난 13일(일)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렸다. 대표가 구속되는 어려움속에서도 뜻이 합쳐진 희망과 꽃다지, 지역의 여러 문제해결이 합쳐져 구속수배자를 위한 모금운동도 함께 벌어졌다.

행사가 끝난 뒤 조계사 경내를 한바퀴 돌며 촛불행진을 하였는데 수배자들은 경내 뒤쪽에서 최후 정문에서 10미터 거리를 지나지 못해 다시 되돌아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거리는 조계사 경내가 아닌 바깥 골목길이었기 때문이다. 한발짝이라도 경내에서 나가면 그들은 골목구석을 지키고 있는 정경들에게 당장 붙들려 갈것이기 때문이다.

기아없는 천막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며 '죄'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수배자들의 혐의는 대부분 죄형법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맞트 방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나 사상'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례적인 법해석으로 그 법과 근거를 찾을수도 없거니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권세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오류점을 안고 있다.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은 조건없는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손으로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자하는 개혁의 소리는 들리나 힘 없는 노동자와 양심수, 수배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지금 정치수배 받고 있는 학생들은 김영삼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 저항했던 학생들이 왜 아직까지 '국민의 정부' 라는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억울한 수배자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어엿한 지성인들이 자신의 능력발휘는 고시하고 기본적인 자식도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가위를 알면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이제 그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어두운 과거를 잊고 국민대화합과 경제회생을 이루는 정치적인 힘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정치수배자들은 71명에 달하며 아직도 차가운 감옥안에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양심수들은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한 상태로 있는 한 우리에게 '제 2의 건국'을 실현시킬만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우리 청년들, 의로운 생각으로 나섰는데 제 자리에 바로 서게 해주세. 그들이 매국노의 길을 가거나 독재에 이복하려 하거든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잘라낸 나라를 기어오르내려 한다면 실려주지 마세. 그러나 그들이 예국의 길, 통일과 쉼, 민주와 길로 나가려 하거든 큰 가슴에 품고 어부만저 주세..." 수배자를 둔 어는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 속에서 과연 무엇을 처벌해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동약론



수배해제

"시아머니 밑에서 시집, 이를 하며 가슴앓이를 하던 머느리가 있었습니다. 머느리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시집살이 안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된 머느리는 과거의 시절을 잊은 채, 한 술 더 떠서 그 머느라하게 더 악랄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전국연합 노수회 공동의정의 연설은 조계사 경내에 적당적당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22일, 안국동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도 예외없이(?) 정경들은 조계사 입구 곳곳에서 무장을 한 채 서 있었고, 뜨거운 날씨에도 대웅전 앞에 빼곡히 앉은 시민과 학생들은 96년도 분교 총학생회장이자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었던 유병문(북교 92)군이 개회선언을 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전국연합, 민가철, 범민련 등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양심수가 1백여명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양심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준비서약서 제도는 양심수 석방의 기준이 아니라 전·노노나 한보비라 사건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한 정치수배 학생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버리는 자식은 버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위해 1천80백을 오늘부터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배생활을 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리라는 자식의 신념이 일기여 목욕히 동행하는 아버지의 숨을 들는 이들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관한 서명을 부탁하는 학생에게 "아! 그래요. 서명해줘요"라는 아주머니, 불교대학원에 입학하려 왔다가 우연히 결의대회를 보고 학생들하면 화염병만 던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몰랐습니다"라는 한 아저씨의 모습에서 변혁의 미풍을 느낄 수 있는 대화였다.

박노해씨의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시중에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와 희망의 모든 것'이며 혁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모여 하나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과거 투쟁한 장면에 저항하다 수배조치를 받은 학생운동관련 수배자 8명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수배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농성단 천막모습.

'끝없는 터널, 이제 밖으로' 수배해제 촉구 농성단, 조계사에서 30일째 농성중

"수배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더구나 기아 없는 수배생활은 무기징역 감옥생활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다." 조계사에서 만난 한 수배자의 이야기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 8명은 '정치수배해제'를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다. 여러 노동자 농성단의 천막에서 '수배해제 농성 25일째'라는 팻말이 붙은 그들의 천막을 찾았을 때는 13일(일) 있을 문화제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었다.

"이번 8.15 시면에서는 반인권적인 준비서약서를 강요해 결국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되는데 그쳤고 수배해제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수배조치를 받은 양심수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학생운동 관련 최창기 수배자라는 훈장(?)을 달고있는 농성단 단장 오창규(전남대 심리학과 86, 93년 남총련 의정)군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발언을 열었다. 그는 "김영삼 정권도 출범초기에 과거청산의 명목으로 3백여명의 정치 수배자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은 오히려 예전 정권보다 더 못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며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65명의 수배해제를 주장했다.

학생운동과 관련한 수배해제를 위해서는 한총련의 이적규정이 철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이영수(5기 한총련 대의원, 서울대 농대 부회장 활동)군은 "학생들이 매년 뽑는 한총련 대의원 2000여명이 모두 수배자가 됩니다. 학생들이 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거를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한총련의 이적성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어 유군은 "여지 논리로 매년 엄청난 수의 수배자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이지연기자

내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현재의 수배해제 투쟁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김영삼(5기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양도 "우리가 힘을 더 적게 받거나 관용하게 살고 있다는 욕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만큼 원칙을 놓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권오현(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씨는 "수많은 양심수와 수배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철폐의사까지 밝혔던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불법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농성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진관스님도 "나의 입구는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악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권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는 인권과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투쟁으로서만 가능하다"며 농성단의 활동을 지지했다. 신도 김정재(상업, 40)씨는 "현대중노동자 농성단이 나 학생 농성단의 천막이 조계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면 정권의 잘못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실상을 꼬집었다.

끝이론도 도착하지 못한 길잡이 없는 끝없는 터널을 걷는 악몽.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항상 쫓겨다녀야 하는 기억없는 수배생활을 수배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비유한다. 이걸은 그들이 터널의 끝에 다다를 수 있기를, 더 이상은 정치수배자가 못가지 않기를 '국민의 정부'에 바래본다.

■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정치 수배 해제를 위한 기획광고

# 우리는 매년 1700여명의 범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1700여명의 대표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한총련 대의원은 이름만으로

그들은 '범죄자'가 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정권의 손에 의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년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배자로 진력해 버린 우리 대표자들은

지금 조계사에서 정치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한달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한총련 이적규정과

이로 인한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민족시주인론  
외대학보

## 농성농성단을 찾아



조계사 안에는 한내음이 쫓겨나오고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보인다. 많은 불자들이 대웅전앞에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바라보며 불공을 드리기에도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부처의 법은 마음은 옳은 자의 편이듯이 그 곳에는 '김영삼정권 시절 학생운동관련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조계사 농성단'들이 자리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전경들과 형사들이 조계사 각 문앞을 지키고 있고,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형사들도 보인다. 그들은 농성중인 수배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없이 이재는 한 곳에서 생활을 하기에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작년 경기도 부총련 의장 권한대행인 김재은(97년 서울농대 총학생회장) 군은 "출로 더 날 때 편이 없어서 밥과 잠자리 걱정을

## 죄없는 수배생활 이전 끝내길...

많이 하였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 대로 보니 정신적 으로 안정을 찾았다"라며 조계사에 들어와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에서 쉬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총련에 대한 고민,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된다.

또한 4일전부터 '정치 수배해제'를 위해 대웅전에서 108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그들의 열심인 모습에서 길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스님들은 유신과 생필품등을 나누어 주고 있으며, 조계사안에서 불자들을 만나면서 김영삼정권 시절에 양산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이 수배조치 해제와 양심수들에게 존법시각이없는 식방 등을 선전, 홍보활동 등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주위의 불자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한 불자는 "김영삼정권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그런데 김영삼정권은 우리나라를 맡아먹은 비리주범인 전·노씨도 사면 시켰다"라고 "열심히 사회민주화를 위해 일해온 청년학생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아직도 수배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형사 공권력의 침탈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농성자들은 형사들에 의해 고립되어 있다. 농성단중 유일한 여성인 김성숙(전남대) 양은 "형사 침탈의 위험과 형사들이 조계사 안에도 너무 많이 있어서 항상 들쭉 움직이고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있다"라며 이곳에서도 감시의 눈초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권력에 대해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는 모습이 느껴진다.

그들은 단지 조계사의 작은 테두리에서가 아닌 시민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해 그들은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김재은군은 "국가보안법은 인륜을 저버리게 만든다. 2년동안 부모님을 뵈지 못해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로 인해 더욱 분노하게 한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한다. 선거공약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 또는 개정할 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는 많이 존재하고, 남아있고 있다. 그 하나의 예가 이 곳이다.

(류청철 기자)

## 忠 大 新 聞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정치 수배자가 8만 명의 사람들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 중에 있다.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지난 달 9일 부터 25일 이상 조계사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 수배해제'라는 '거기' 목격자 대체어 '양심수 정권시절', '국가보안법 철폐 또는 개정', '국가헌법수호회'의정원'이하 한총련'이 주도한 규장 재검토, '국가헌법수호회' 대안 부처를 권위있는 '한총련' 주장하며 농성중

## ◇ 조계사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

# “정권이 바뀐 지금도 ...”

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에 의한 수배자들은 모두 56명으로, 이 중 8명만이 이번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배 생활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양심수 뿐만 아니라, 수배자들도 한 정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독재에 항거하며 공권력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있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정권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양심수들 대거 석방하고 수배해제 조치를 취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13 특별기면에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작은 수의 양심수만

사면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농성단은 지난 4월에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전남지역 총학생회장(남총련) 의장)농성단장을 필두로 전남대에서 정치 수배 해제 모임을 만들어 서명, 탄원서, 모금, 홍보활동을 벌이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5월에는 전남대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모임을 확대 개편하면서 농성단을 조직적으로 결성하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144명의 양심수를 아무조건 없이 석방하고 310여명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에게 불구속 수사에 기소유예라는 수배해제 조치를 썼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농성에 대해 오창규 농성단장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재에 저항하다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세력에 대한 정권식방과 수배해제는 응당한 결과를 주어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라며 농성단의 요구를 밝혔다.

또한, 한신대원 연공원(전국대 농회)씨는

"새로 생겨나는 수배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니 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수배자들이 더 이상은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가 지나 계속 되겠지요"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

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엄연히 '사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 기본권을 누리고자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의 죄인이 되어야 했다.

예컨대 2천명씩의 양심수나 정치수배자를 만들어 내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범죄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법의 정신은 어디나 찾아 할 지 걱정이야.

박지은 기자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창살없는 '양심수'

## 새정권 출범이후 정치수배자 2백여명 ... 인권차원의 해결책 마련해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흥권 회장), 유병문(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충련 조국통일위원장), 김현곤(서울대 87학번, 제5기 한흥련 연대사업위원), 엄동철(건국대 91학번), 김성숙(전남대 91학번, 제5기 한흥련 언론사업), 이영수(97년 서울농대 부학생회장), 김재훈(97년 서울농대 총학생회장), 홍준호(97년 인천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8명이 지난 8월 9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70여일이 지났다.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에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 70여일동안 농성 계속

매일 아침 6시 기상, 10시 대중전 앞에서의 백발백중, 그 후 참선과 운동, 70여일을 이겨낸 이들의 생활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자신들이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준법서약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면 수배해제를 약속한다는 회유가 들어오기도 여러 번 하지만 대답은 길을 수 밖이 없었다.

정권이 준법서약서를 한충련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수차례나 봐 온 그들은서서히 여기보면 당연한 일이다. 농성단의 요구는 크게 김영삼 정권시절의 정치수배자 수배해제와 양심수 석방, 한충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 등이다. 유병문씨는 "우리의 요구들은 민주사회의 위한 기본"이라며 "더이상 수배해제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권시절 한충련과 관련해 수배자란 명어를 쓰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는 모두 60여명. 정권이 바뀌고 50년만의 역사적 결판



조계사 농성단은 70여일 동안 수배해제를 위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결의대회 모습

교과가 이루어져도 이들의 신분은 여전히 수배자이다. 친구와도 가족과도 한부로 연락하지 못하고 항상 가슴속이 어눌한 곳만을 찾아 다녔다. 이는 죄인의 처지이다. 지난 8월 13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발표된 유병문씨의 시집 <양심수>에서, 이러한 수배해제와 처지를 잘 말해준다. '학교에선 늘 죽을 맞추는게 질서라 했지만 닥춘 끝은 이내 흐르러지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질서라고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다 - <질서>, '아버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가슴이 있었습니까' 어머니란 이름에 눈가에 흥수지 않은 인생이 있었습니까 - <자식>' 지난 '시와 노래의 밤'에서 많은 수배해제들과 가

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8년째 수배중인 조계사 농성단장 오창규씨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 수배생활은 체념과 초연함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기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가계원은 침으로 고통스럽습니다"고 심정을 밝혔다. 지난 3월 13일과 8월 15일 특별사면 때 자신들의 수배도 해제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이 느낀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 두말·노래우 정치 대통령도, 살인자도 부장총재도 나오는데 죄인은 내까지 수배해제 안되라고 여겼던 수배자 가족들도 참다 못해 '수배자 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수배자가족들의 처지는 양심수들

들 가족들에 못지않다. '가족들의 고통은 자식격정에 끝나지 않는다. 도경찰청, 시경찰청, 보안수사대, 심지어는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아무때나 집에 찾아와 열박·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고 가족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살이 불가능을 담보하는 안을가 이렇다할 말도 못해은 억울함. 이제 이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수배자 가족 수가합 결성기도

지난 16일 결성식을 가진 수배자 가족들은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 △정당정치 수사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수

배자 가족들을 위한 친교활동 △국가보안법 철폐·준법서약제도 폐지 운동 전개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성문에서 이영수씨의 아버지가 쓴 '김대중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가 실리기도 했다. "제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도, 아니라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니다. 8·15때는 살인자도 국민의 돈을 수십억 횡령한 자도 모두 사면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제 자식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는 편지내용은 모든 수배가족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 인권공동대위 적극 활동 모색

이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제민중대회에 참석한 국제 앰네스티(Amnesty) 피터르 사데 사무총장은 조계사 농성단들을 지지하고 정치수배해제 수배해제를 지지하는 자필서명을 해 농성단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 발족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홍근수, 진관, 오세철, 이하 인권공동대위)'는 지난 1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보장 8대요구안' 수용과 김대중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각각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농성하고 있는 수배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고 있다.

인권공동대위는 오는 24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명동성당 문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11월에는 양심수 정권역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대중제'를 한양대에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권공동대위측은 "조계사 농성단으로부터 약서 재출을 요구하고 명동성당 농성장에는 재수감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와 정치수배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 아침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조계사 대중전 앞에서 백발백중을 울리는 조계사 농성단들은 하루빨리 기다리는 가족들과 보고싶은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길이 준법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반성문을 쓰는 방식은 아니라고 단정히 얘기한다. 조계사 대중전엔 한천에 세워진 초라한 천막에서, 밤에도 침달에 대비해 보초를 서면서 이들은 자신있게 시련을 이겨내고 있었다.

(천원식 기자)

중대신문 10월 19일

### ·수가합 결성식 및 결의대회

## 수배해제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수가합은 정치수배해제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 사회민주화에 대해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 오승환 기자)

"이 미래지는 듯한 예비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자식이 수배자 생활을 하는 부모의 심정을, 아니 자식의 심정까지도 대동령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6일 안국동 조계사에서는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수가합 가족협의회 결성식 및 결의대회'가 한충련 관련 수배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수배자 가족협의회(공동대표: 유철근, 오종철, 이영숙, 장재욱, 이하 수가합) 결성식'과 2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 해제를 주장하며 2시간여 동안 격양된 어조로 구호를 외쳤다.

조계사 농성단장 오창규씨의 아버지 오정렬씨는 "성전앞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어 불자들에게 송구스럽다. 하지만 세상을 밝게 하고 민주사회를 이루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는 현실이 참담하여 몹소 나섰다"며 결성동기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러한 위상에 이르게 된 것도 청년학생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는 보수정치인들을 가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오승환 기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5일(음력 7월 15일) 토요일

# 조계신문

3



부처님가피로 정치수배 해제를... 조계사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7인의 학생들이 지난 24일부터 108명명정 전에 들어갔다.

### 하루빨리 고용안정을...

지난 8월 26일 대중전 앞에서 현대중기 노동자들이 조합원 20여명의 강제 연행 규탄과 고용승계 촉구 결의를 다짐하는 대회를 열었다.

조계사 농성단 가족들의 소개와 '어머니의 노래' 재창이 있는 동 안 참여자들은 더욱 숙연하게 자신들의 결의를 내세웠다. 한충련 학부모협의회 회장 김종민 목사는 "수배자 가족이 받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지속적인 탈퇴안력과 감시속에서 죄인 취급까지 받고 있다. 학생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 안된다"며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했다.

한편 2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다.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유병문군의 사회로 이루어진 집회에서 시종일관 '민중기본권 보장과 노동자 고통전개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김대중 정권의 개혁작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들은 아직도 준법서약서와 40여년에 이르는 최장기수배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과거 독재정권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권보정착화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그들은 이날로 69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근본적인 정권전환과 총체적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을 밝혔다.



수배해제광고

# “다시금 교정을 활보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 다니는 교정을 자유롭게 밟는 것이 소망입니다.  
 김영삼 정권하 정치수배자가 됐던 그들,  
 안보비리, 5·18학살 주범인 자들이 버젓이 세상 공기를 맡으며 조국의 땅을 걷고 있는 때에  
 이 땅의 순수한 청년들은 조계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억울하게 수배자가 된 시대의 희생자들,  
 조건없는 수배해제를 요구합니다.



서울여대 학보사



## “나보기 -시집 ‘양수리에서’ 발간한 유병문\*씨 외대청년 “운동의 감동은 진실이며 힘입니다”

지난 15일(수) 조계사를 찾았다.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8명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어느덧 사람들 비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96년 연세대 통일추진.  
 그해의 주역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동국대 총학생회장)이 이곳에 있다. 백배이론 앞글,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수배정당에 오른 사람. 바로 그가 시집을 냈다. ‘양수리에서’라는 이름의 시모음집.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남, 북으로 쉰여섯 있는 모퉁이들이 하나로 만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일 찾아가는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생각나. 운동의 처음과 끝은 동지를 얻는 것이다. 단신과 첫만남이지만 오늘 이 만남이 당신과 나 사이에 인연의 씨앗으로 꽃피었으면 한다”며 첫 할말을 유병문은, 그가 말하는 시집출간의 의미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세월의 성장이다. 내 선택도 후배도, 나도 수배자일 수 밖에 없는 이 분단시대에 수배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힘도 주고 싶었다.  
 “바스를 기다리다” 다가서는 열 사랑을 걸는길로 경계선이다”/ 순채 국립을 맞다/ 뒷방아궁이 곁에 있는 사

학들을 일일이 외심하다// 나는 못내 답답해져/ 아무리 울러다봐도 끝없는 하늘 한층/ 긴 한숨을 풀어놓는다(수배일기 중) 이런 불인정(?) 성취를 했던 그가 어떻게 300여권이 되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나된 조국을 위해 부름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의사소통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는 후배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다. 풀썩거리며 숨어 다니는 내가 이래도 되는가란 의의도 들었다. 결국 스스로 부끄러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 300여권의 시다.”  
 그가 바라보는 시는 이렇다. “나는 감동의 순간을 시로 표현한다. 정황 속의 눈물이 바로 창작의 원천이다. 이를 토대로 글을 쓰면 그 글에는 감동이 살아있다. 이 때부터 글이 시가 어려워질 필요는 없다. 내 시에는 뜨거움, 눈물, 열사들의 한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평생동안 열사들 300명의 삶을 시로 쓰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돌아와 동국대학원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거든 그는 “문화예술계 기반한 동기가 동국대를 찾아가 모두 ‘노가다’를 해서 번듯한 돈독을 내내주던 선배들, 학생회관에 있는 빈방을 모아서 관문으로 후배에게 책을 사주는 선배들... 이렇게 착한 선배들이 감동을 피워 도왔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본노하게 되었다”며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한다.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 열사들의 희생, 그리고 우리들의 투쟁의 대가이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는 300여명의 양심수가 있고,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게다가 여전히 지난 정권시절의 70여명이 정치수배자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농성을 진행중인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시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자신에게 돈을 부쳐주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예인, 김천교도소에 갇혀 있는 96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안구, 조카, 어머니 그리고 노수석열사를 보낸 것을 여전히 향으로 삼고 있는 박병진(96년 서훈연의장, 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이 그들이다. 특히 ‘영남의 눈물’은 당시 박병진 씨를 다독이던 유병문씨가 같이 눈물을 흘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시로 노수석 열사를 기억하는 사람들과서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사람의 가슴마다, 감동같이 흐르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림을 무엇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도 넘쳐흐를 수 있는, 진실의 힘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가을이 오는 조계사에서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오늘의 만남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배려이다.  
 전대기원 통부지부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박혁  
 95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동국문화회가입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겸임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책임  
 현재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 첫 시집 <양수리에서> 낸 정치수배자 유병문씨를 만나 부산대 신년 9월 28일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19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19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임  
 1996년 연세대 통일대추진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발부  
 1998년 9월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 해제 촉구’ 조계사 농성 중

가장 인간적으로 살고 싶기에 반인간적인 것에는 가장 치열히 맞설 수밖에 없는 그. 그는 96년 연세대 통일추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수배생활 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그와 같은 처지인 수배자 6명과 함께 서울 조계사에서 ‘수배해제와 양심수 전회석방’이라는 구호가 적힌 천막에 농성 중

인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글쓰고 싶어 문학회에 들어가었죠. 그 곳에서 문학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운동 역시 삶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며 시와 운동이 만나는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한 첫 시집 <양수리에서>는 그의 수배생활을 총회하고 성찰한 것이며 다시 내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다.  
 흔히들 운동권에 서조차 실재라고 규정짓는 ‘연세대 사건’을 주도했던 그는 그 때를 어떻게 정의내릴까 궁극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비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외쳤던 ‘통일’의 함축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집에 등장하는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이요’라는 그는 언뜻으로 인해 왜 꼭 보도되었던 연세대 학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부터가 시급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총련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총련 티셔츠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어요. 그럴 때면 행동 하나 허투르 하게 할 수 없었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중들의 삶 속에 녹아나야 하는데...”라는 그는 그대도 여전히 한총련을 ‘사랑하는 나의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전히 감옥에는 3백여명의 양심수가 있고,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난 정권시절의 70여명의 정치수배자가 현존하고 있다. 양심수 문제는 그나마 공론화 되고 있지만 수배자에 대한 선그치 여론화되지 않았다. 그는 수배생활의 모습

을 담아내어 수배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배해제를 대중투쟁 속에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그에게 있어 “운동”은 구호를 외치거나 회합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지를 얻어가는, 사랑을 얻어가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타협할 수 없는 것과 싸울 수밖에 없다.  
 “사람의 가슴마다, 감동같이 흐르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림을 무엇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도 넘쳐흐를 수 있는, 진실의 힘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라며 나치에 맞서는 그의 모습은 힘든 나치 생활을 정말 사람에 대한 믿을 하나로 버티는 세월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시는 부드럽다. 그러나 또 한 치열하다. 그의 시가 힘을 가지는 것은 그 부드러운 가장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의 처음과 끝은 동지를 얻는 것입니다. 단신과 첫만남이지만 오늘 이 만남이 당신과 나 사이에 인연의 씨앗으로 꽃피었으면 한다”라는 말 속에서 그의 시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려하기 때문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윤미 기자

## 8 문학 9.28 문예

시집 '양수리에서'를 출간한 정치수배자 유병문군을 만나

# 뜨거움, 눈물, 열사들의 한 담은 진실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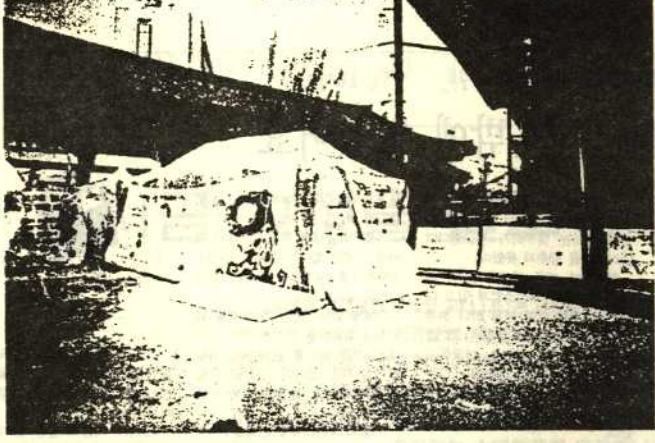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



“뜨거운 8월의 여름부터 시작된 투쟁이 어느 가을에 닿았어요”라며 말을 건네는 유병문(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군을 조계사에서 만났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핵심 간부의 투쟁과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었던 한 사람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시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의 시인은 다름 아닌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외치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백발백중을 울리며 마음을 비운다는 유병문군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것이다.  
 조계사 안에는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한총련 수배자들과의 친화적 분위기가 넘쳐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배해제’를 주제로 하고 쓰여진 문장이다.  
 그는 유년에도 미르고, 큰 카에 물려 인정이 돼 인상적이다. 대학에 입학한 때부터 남달리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동국대 문학회에 들어가 회장을 지낸 정도로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운동을 하는 순간에도 시를 쓸 줄도

있으며, 수배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96년 말부터 문필을 쓰기 시작한 시가 어느새 지금은 4백여편. 이 글을 출판하여 삶을 되돌아 보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사람이다.  
 “사람의 가슴마다 감동 같이 흐르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다. 무엇이 그 감동을 막을 수는 없다.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도 넘쳐 흐를 수 있는 진실의 힘을 갖고자 한다”며 유병문군은 시집을 출판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감동의 때 순간을 시로 표현한다. 생활 속에 눈물이 바로 창작의 원천이 되어 이를 토대로 글을 쓰고, 그 글에는 그의 감동이 살아있다. 이 때문인지 그의 시는 어렵지 않으며, 그 또한 시는 어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의 시에는 뜨거움, 눈물, 열사들의 한이 담겨 있다.  
 96년 연대투쟁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외쳤던 것을 돌아보는 청년이었다.”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단언히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지금의 한총련 학생들을 굳게 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청년학생들이 할 일에 대해 유병문군은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 오류점을 밖에서만 찾아서는 안되며 자기 혁신을 통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또 청년일꾼들이 하나 되어 작은 한걸음이라도 학우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양수리’라는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병문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장소를 지명함으로써 통일을 말하려 했는지 모른다. 남쪽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힘든 생활을 추구보다 열심히 사는 그쪽 보면 시가 얼마나 치열하게 쓰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시에는 힘이 있고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헤어져 있는 모든 이들로 하나로 만나는 두물머리에/ 그대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움의 강 통일이 강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그 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지후 기자



### 가족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정치수배된 화생들과 현대중기 노조가 지난 여름부터 조계사 마당에서 장기 농성중이다. 싸늘한 날씨 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간다. 조계사를 찾는 불자들이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그들이 하루 빨리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조계사

### □ 분석 - 수배자가족 협의회 결성의 의미

## 수가협, 지난 16일 발족식 가져 자녀 수배해제 위한 결의 높여

지난 16일 조계사에서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수가협) 발족식'이 열렸다. 수가협은 지난 15일에 수배자 가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가협 결성을 위한 회칙, 향후활동계획, 수가협 결성선언문을 의결하고 각 지역별로 수가협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 유철근씨, 오종철씨, 이형숙씨, 장자우씨를 선출했다.

수가협은 정치수배를 받아 탄압받고 있는 68명의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수가협을 결성했다. 수가협은 결성선언문에서 "그 동안 수배해제에 대해 정부의 민중이 실망했다. 조계사에서 8명의 자기가 수배해제 농성을 하고 있고 수배자를 둔 부모로서 작은 힘이 되고자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배자 가족들은 수배해제농성을 시작한 직후 수배자부모 민가협 어머니, 도관스님, 김재용(한총련 1기)의 장석 등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고 김대중 대통령 안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한 회갑 원내총무에게 담담 토론회를 통해 청와곡에 주연되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대중 집회에 참가하고 수배해제활동을 해왔다.



지난 8월 22일 조계사에서는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가 열렸다.

수가협은 수배해제를 앞당기기 위해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 후원 ▲수배자들의 수배 사유에 대한 진실 규명 활동 ▲경찰과 수사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 대응 ▲수배해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 ▲수배자 가족들간 위로와 친교활동 ▲국가 보안법 철폐, 전법사안제도 폐지 운동 전개 ▲여민단체와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수가협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5기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검찰, 경찰 추과 토론회하는 지지를 통해 자녀들의 수배사유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수배자 가족들은 심각한 직장을 못 다

니게 하겠다는 열락하거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아들이 간첩이나 빨갱이냐 하는 헛소문 내고 전화를 도청하는 등 경찰과 수사당국에게 인권 침해 받고 위협사실이 들어 날 경우 개인 자를 처벌 및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5일이 가질 조계사에서의 대통령 탄담 재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머리 가지 언론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수배해제 정당성을 홍보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여론 주도층인 종교계, 학계, 정치계에게 연대할 것을 촉구하고 대중집회나 문화행사 및 합숙하고 국민홍보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노른이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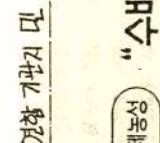
정봉호씨에게 수배된 가족



양심수 선반영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정봉호씨에게 수배된 가족



정봉호씨에게 수배된 가족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출범 초기 수배해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라는 현정권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수배자와 양심수들은 김영삼 정권의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지 믿어야 한다"는 대목에서 김씨는 기어코 눈물을 티뜨 리고 말았다.

이곳에 있는 수배자들이 김준배 열사에 대해 느끼는 심정은 그렇게 각별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수배생활을 하던 중 김준배 열사의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그 때의 참담한 심경을 오창규 단장은 이렇게 전한다.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한 자마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용마산 아래에 올라갔습니다. 쪽포수 아래에 서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오창규씨가 수배생활 중 처음 흘린 눈물은 아버님이 감옥살이를 하실 때였다고 한다.

이들 농성단들 대부분은 부모님 생각에 가장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아버님의 수을 소식을 접했을 때, '어머님이 전화너머로 목놓아 우실 때' 이들은 눈물을 흘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 이만 같이 살게 해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라는 오창

규와 관련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파악된 인원으로 65명,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고장을 떠나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들 수배자들은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 관계를 끊고 지내는 생활을 한다. 자

"혼자 이곳 저곳을 떠돌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모인 수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지금 이 현실 좋다'는 것이다.

지는 모습에서 벗어나, 조계사를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 해주기도 하고, 민가침 집회에 참여하거나 법무부에 한 의방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지금 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오창규 단장을 비롯해 총 8명이다. 처음 농성은 7명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9월 첫주부터 홍준호(26)씨가 새로 합류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학생운

살이를 즐기고 한다.

이렇듯 수배생활은 사람을 사람에게서 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정하고, 그로 인해 이 사회 주변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한다.

"혼자 이곳 저곳을 떠돌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모인 수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지금 이 현실 좋다'는 것이다.

수배자모임은 올 4월 시작된 전남대 수배자후진회가 처음이었다. 이 모임은 통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명을 빌으려 다니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모금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서 잊혀졌던 수배자라는 존재가 다시 상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후 전남대 후원모임이 광주 전남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에 있는 수배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다.

"기결수에게 적용하던 준법서약서를 아직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수배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8명이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밖에서 외롭게 지내는 수배자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한 이후 지난 8월 22과 9월 13일 열린 대중적인 집회 이외에 또 두차례의 기자회견, 경합총장과 내치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국민회의 내에서는 '준법서약서'를 조건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오창규 단장은 "준법서약서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다른



사진: 이만영

위치는 아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가족의, 후배들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준법서약서 안 쓸거냐"는 부모, 친지, 친구들의 전화콜 받으면서도 "안응답할 소지가 있어서..."라며 특히 자신들로 인하여 지금의 한층론 수배자들이 자유를 당하지 않음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

이들은 지난 8월 14일 목요일 때 자신들의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8·14 사면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

되는 것을 보며 현정권에 또 한번 길게 실망했다고 한다.

이들의 추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김영삼 정권 시절에 양산 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조치 해제.
-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 마련.
- 감위원, 정명기, 성태홍 한층론 전임 의장을 비롯 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사면과 석방.
- 5기 한층론 이적단체에 대한 규정 재검토,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은 6



사진: 이만영

▲ 이들은 수배해제 농성을 앞마당에 열매를 들고 있다.

"매일 저희한테 열음물 한 병씩 가져다주는 이기씨가 있어요. 저희는 열음이기씨라고 불러요. 겨울이 되면 차를 가지고 오시러나..."

이들의 하루생활은 새벽 5시 반, 대용진 앞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침 10시부터 백팔배를 드리고, 이따를 찾는 방문객들을 맞

"빨리 수배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백팔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일거예요"(김상숙씨)

"불고신도는 아니지만 신도를, 그리고 특히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있는 실천 승가회와 세불회, 대불련 분투회 이렇게라도 고품을 표현하려고 합니다."(오창규씨)

농성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김철근(31)씨가 열음물이 담긴 페트병을 가져와 한 안으로 돌려준다.

재론에는 벌써 어디든지 사라졌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어제 유병문씨 아버님께서 사오신 생선구이이다.

운동의 한 축을 잡고 이제 또다른 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 한층 폭넓어진 모습으로 우리곁에 다가온 이들과 갑자기 조개사 앞 라면집에서 리면 한 그릇을 나누어먹고 싶다는 생각이

흔자 조개사를 나서며 이제 재 채반 단풍이 수북이 쌓인 거리를 이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 소주라도 한 잔 할 수 있기를, 무슨 영화를 볼까 하는 걱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합창하고 고개 한 번 조아리며 빌어 본다. 이들과 사소한 자유를 함께 누리고 싶다.

이들 소식은 인터넷 <http://user.chollian.net/~ncyc93>과 나무누리 scugoo9(민운사)방으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다.

농성자 명단(총 8명)

- 오창규 전남대 심리학과 86학번
- 전남대 종합생화학, 남흥린 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김현근 김천군 농회장과 87학번
-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유병문 등주대 불교학과 92학번
-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회장으로서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임동철 건국대 농학과 91학번
- 97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 김장숙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91학번
- 93년 전남대신문사 편집장
-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 이영수 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94학번
- 97년 서울동대 부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김재돈 서울대 농기계과 94학번
- 97년 서울 동대 회장, 경기남부총련 의장 권한대행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홍준호 인천대 국문과 94학번
- 97년 인천대 인문대 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죽 하 합니다

11월 1일 논평을 올린 어조수(울산) 연한 노동국장(남)과 정운정(울산)세남 어는정(화) '현원'님의 회담장 '안남을 기원합니다'.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 임동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본부 임근 임동

“시는 삶과 조국을 사랑하는 또다른 방식입니다”

수배생활을 담은 시집 「양수리에서」를 펴낸 유병문씨를 만나

조계사 농성을 진행하던 중 시집 「양수리에서」를 펴낸 유병문씨를 만났다. 96년 연세대 통일부영을 주도했다는 '죄목'으로(그는 당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었다) 2년이 넘도록 수배생활을 해오면서, 틈틈이 쓴 시들을 엮어 책출판 유씨는 동국문화회 회장 출신으로 중학교때부터 시인을 꿈꾸어왔다고 한다. 그러한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그는 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유병문씨를 만나기 위해 조계사를 방문했을 때 그는 「한겨레21」 기자와 인터뷰 중이었다.

지금까지 꽤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하러 왔다고 한다. 이들의 중요일정 대부분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 신문사와 단체에 전화 연락을 하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이들은 유씨의 책에 대한 홍보도 열심이였다.

“이 책은 원래 지난 5월 나를 예경이였습니 다. 그런데 공간기관의 협박이 있었어요. 출판사 사장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저의 문화의 선구자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는 다음을

기약하며 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에서야 나오게 됐네요.” 그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문화회 선배 남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로 운을 떼었다.

우선 책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물었다.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지요. 그렇게 두 강줄기가 만나서 조국의 심장부인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기듯이 해어진 사람들이.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는 수배생활동안 4백여편의 시를 썼다고 한다. 그 왕성한 창작활동도 놀랍지만 책장을 넘기며 엿볼 수 있듯이 그가 분단된 조국을 바라봄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를 새삼 부끄럽게 한다.

오늘도 내일도  
쉬지 말고 흘러서  
막히면 돌아서라도 흘러서  
앞으로 멈추지 말고 흘러서  
만나다  
-양수리,동에서

그에게 양수리는 그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강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인 강.



서인 배영

▲양수리에서, 책, 유병문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따뜻함이 묻어 난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인연 맺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수배생활동안 느낀 것이 있었다면 사람에게 대한 소중함이겠지요. 그것은 자유로운 몸일때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 입니다. 애타기도하고 때론, 권틀기까지 하죠.”

그의 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와 함께 총학생회 활동을 했던 친구, 4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정명기군. 그에게 돈을 부쳐주었다는 이유로 감방살이를 해야했던 그의 애인. 특히 '병인의 눈물'에서는 노수 박병언군의 눈물을 바라보았던 그의 가슴 아린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다.

40년 화우의 생활 학문 투쟁의 구심이라는 서총련 의정 병언이가 울고 있다  
수석을 지키지 못했더라  
죄스러움으로 명물고  
분노로 응어리진 가슴으로  
병언이가 울고있다  
하늘도 함께 울었을까  
비는 줄창 내리고

만남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분단된 조국을 향해 던지는 애화를 또다시 엿볼 수가 있다.

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의 시는 시적 기교나 형식이 뛰어난지는 못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배생활 동안 자기성찰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가 이 책을 통해 세상에 던지고픈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 지금도 이 땅을 의외로 떠돌고 있을 수배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수배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책의 부제를 붙였더라면 '수배일기'가 되었을 거예요.”

책이 떨어져  
리면을 끌어먹는다는  
생활에 포퓰러 고달프다는 동기 녀석이  
꽃기고 꽃기다니는 벼를 만나  
헤어지는 길  
하고 싶은 말  
못 다한 말  
가슴 한구석에 믿음으로 남겨두고  
꾸깃꾸깃 채 마음처럼 몇 번을 집은  
핀지 불투 하나  
손에 쥐어주고  
지만지 멀어져 간다  
-수배일기3, 동에서

수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가

비에 뿔뿔 젖어  
나를 깨안고 펄펄 울고 있다”

“수배생활을 하며 두 가지를 신념처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잡히지 말아야한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양심과 신념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배해제가 된다면 먼저 민중운동에서 노수석, 김준배 열사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온몸으로 투쟁해왔던 그에게 시는 어떠한 의미일까.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로 시는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고 감동을 노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순수한 사람만이 진실으로 분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와 투쟁 모두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슴이 뜨겁고 사랑을 사랑하다보면 그것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는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글을 배운 곳이 동국문화회라며

자신에게는 그곳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시와 사람의 한술밤」에서 그는 동국문화회를 “사람 속에서/눈물 속에서/문학과 역사 속에서/애국과 투쟁 속에서/사랑과 인정이 숨쉬는 곳”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문화회에서 출발한 그의 열정과 신념이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뜻을 피우고 이제는 더 나쁜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가 건네 주는 책표지를 넘기니 깨알같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있다.  
“감감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씻어주는 바람이 됩시다. 유병문 드림”

많은 이들이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서의 철저하고 단호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 을 그는 지금 '시'라는 무기를 통해 사람들을 의 마음에 시킨바람으로 다시한번 사랑을 다가가고 있었다.

이제 그의 새 첫말의 물구절은 다시 그에게 들려져야 할 것 같다.

그대 한 줄기 눈물은  
익사를 이루는  
강물의 시작이었습니다

◇ 조계사 농성중인 8명의 학생운동 수배자

# '진보' 없는 역사를 고발한다

"유해 추서에는 제발 그리운 부모 형제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허름한 천막을 집 삼아 30여일째 '정치수배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김성숙(전남대·26)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양을 비롯해 조계사에는 7명의 학생운동 관련 정치수배자들이 범죄자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는 김영삼 정권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은 상태다. 이 중 대표를 맡은 오창규(전남대·83년 남총련 의장·31)씨는 벌써 6여년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별'라는 말에서 들어나듯 이

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법적 관려도 받지 않았다.

"요즘들어 경찰은 자주 뒤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집행유예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회유합니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무능하고 부패했던 김영삼 정권에 저항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형 정부도 '이적'이라는 울기미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김양의 말처럼 김대중 정부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변하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다.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55명의 양심수 중 94명만이 석방됐고,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된 65명의 학생들에 대한 수배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전 정권 때보다 더 많은 노동자·학생들이 투옥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됐던 한총련 관련자 8명은 조계사 경내에서 30여일째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이 올해 추석에도 자신들의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진보'라는 단어를 잠시 접어들어야 할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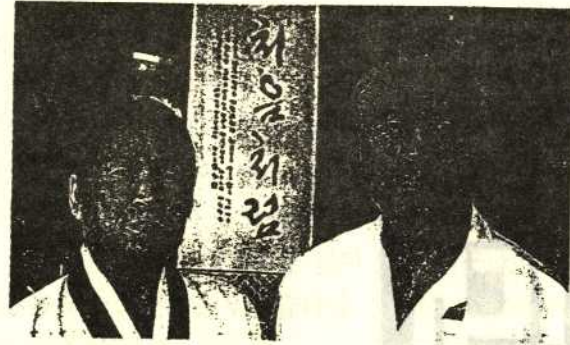
이들이 올해 추석에도 자신들의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진보'라는 단어를 잠시 접어들어야 할지 모른다.

이영환 기자

## 생이별 한 몫은 '운동권 가족'

광주시 장동에서 광주함교육사라는 전교조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종렬(60·오른쪽)·김평일(54)씨 부부의 가족은 모두 평생한 운동가들이다. 백발이 성성한 오씨는, 89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전교조 창립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재야 운동에 투신해 2년8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쌍둥이 아들인 정규·창규 씨(32)는 93년 각각 전남대 공대 학생회장과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검찰에 수배되었다. 창규씨는 지금까지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로 남아 있다. 부인 김평일씨는 전자제품 외판원과 전교조 물품 행상을 하며 혼자 생계를 꾸리다 울화를 못

이겨 심장병까지 얻었다. 지난 8·15 특사 때도 오씨 가족은 사면과 수배 해제 혜택을 받지 못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수배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창규씨는 지

금 자신을 포함한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 64명'의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한 달 넘도록 시위하고 있다. 오종렬씨 또한 자격 정치 처분이 풀리지 않아 복직하려면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그는 전교조 해직 교사 중 유일하게 복직하지 못했다.

오씨는 "장가를 보내야 할 아들이 5년여 동안 집에 한번 들어오지 못했다. 헌정을 파괴한 전직 대통령들과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관료들은 사면 복권하고, 그들에게 저항한 양심수는 왜 일부만 풀려나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재광·광주주재기자

신사저널 (98-9-24)

뉴스플러스 15호

##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9월7일부터 조계사에서 한총련 후배 7명과 함께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창규씨(31세·93년 전남대학생회장 겸 남총련 의장)는 현재 '최장기 수배자'다.

그가 '창살 없는 감옥' 생활에 들어간 것은 지난 93년 5월 고려대에서 벌어진 한총련 출범식 이후.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조선학생위에 문화 교류를 제안하기 위해 북경에 있는 이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당국은 이 때부터 '이적단체와 통신'한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쫓기 시작했다.

그의 공소시효는 금년 5월로 끝났지만 단독범이 아닌 경우 수배기간이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에 걸려 여전히 수배자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당시 중앙상임위원회에 14명의 위원이 수배됐고, 나중에 체포된 이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이라고 그는 말한다.

만 5년이 넘는 시간을 한갓잠을 자면서 무쇠도 씹어내던 그의 몸은 신경성 위궤양으로 망가졌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농성을 시작한 뒤 종교계와 민변 등이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올 추석은 가족하고 보내면 참 좋겠다. 그의 소박한, 그러나 절박한 희망이다.

이광필기자



### 사람이야기

한겨레리 9월 24일자

## 시로 풀어낸 수배생활의 고통

● 옥중 서신이나 수상집이 책으로 묶여 나온 적은 종종 있지만 수배자가 책을 낸 적은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유병문(26)씨가 지난 9월14일 펴낸 시집 《양수리에 서》(시와사회)는 그 첫 사례로 기록되는 셈이다.

유씨는 이 시집이 자신의 '수배생활 보고서'라고 했다. 수배생활에서 겪은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기 삶에 대한 성찰 등을 고도의 세련미는 없지만 솔직한 언어로 담아냈다. '수배일기'라는 제목의 연작시는 버스를 기다리다/ 다가서는 옆 사람/ 결눈질로 경계 해야 하고 '몇달 만의 전화에/ 울먹이는 어머니 때문에/ 참다 참다 나도/ 울어버리고 말았던 수배생활의 단면들을 보여준다. 그것은 누나가 보내준 조카 사진을 보며 '이쁜 볼따구니 꼬집고도 싶어/ 자꾸만 사진



속으로/ 해업처 들어가는 내 손' 처럼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활은 잠시 중단됐다. 지난 8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또다른 수배자 7명과 함께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비록 조계사 경내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자기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안부인사를 전해야 했던 부모님과도 수배생활 2년 만에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전국을 헤매 돌아다니며 틈틈이 적어왔던 그의 글도 이 틈에 햇빛을 보게 됐다. 시집 발간은 지난 5월로 예정됐던 것이 공안당국의 저지로 이제껏 미뤄져왔다.

지난 92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한 유씨는 총학생회장이 되고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동국문화회'에서 활동한 문학청년이었다. 96년 연세대 통일대속진 행사를 주도한 혐의로 외롭고 힘겨운 수배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접어뒀던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지금까지 쓴 시가 400여편에 이른다.

그가 평평한 긴장의 연속인 수배생활에서 이렇게 지주 시심(詩心)을 불러낸 것은 스스로 말하듯 '최대한 감정의 강물을 막아야 하는 수배자의 수칙을 어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점은 그의 시에서 문학적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한 정황을 이루기도 한다.

박용현 기자 piao@mail.hari.co.kr

# 여성시대

1998년 11월호



편지 여덟

## 제 자식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김미경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 살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95년에 결혼해 지금은 아기 하나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동네에서도 인심 좋고 정이 많으신 소박한 분들이십니다.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자식 교육만은 시키겠노라며 허리띠 졸라매실 때 서울대에 다니는 막내 도련님은 우리 시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들에게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항상 믿음직스럽고 순수하던 도련님이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라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 도련님은 방학 때 집으로 내려오곤 했지요. 늘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발독 위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도련님의 모습은 언제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생각하던 도련님이 저는 서울대에 간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처음 서울대 단과대학의 부학생회장이 되었을 때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업에서도 줄곧 장학금을 타며 항상 어긋남이 없던 도련님이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아기는 삼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 때 보고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전 삼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던 우리 아기가 불과 한두 시간만에 정을 붙여 헤어질 때는 삼촌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참 울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명절 때면 언제나 닭고기를 즐겨먹곤 하던 도련님께 이번 추석엔 꼭 닭고기도 먹여주고 우리 아기랑 사진도 찍어주고 싶었는데...

다가오는 음력 9월 18일은 우리 도련님 생일날이고 또 10월 2일은 우리 시아버님 환갑날입니다. 얼마전 아버님께선 도련님이 하루 빨리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를 쓰셨답니다. 평생을 당신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않으시던 아버님께서 무너지는 억장에 평생 처음으로 남몰래 쓰신 편지를 읽고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숙, 김승현 씨!

우리 도련님의 일이 우리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우리 시아버님의 편지를 이렇게 함께 동봉하니 두 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읽어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저는 97년 한총련 제5기 때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 부터 수배자가 된 이영수의 애비입니다.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이 심정을 어찌할 바를 몰라 감히 대통령님께 몇 자 올리려 합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50년 전에도 농부, 지금 1998년에도 농부, 오직 농촌에서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영수는 그런 저의 다섯 자식 중 막내입니다. 처음 대학원서를 쓰면서 농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저는 무단히 말렸답니다. 저 하나 흙을 파고 살았으면 됐지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기 바랬답니다. 웬지 아십니까? 피땀 흘

독자투고



양심수·정치수배자에 자유를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대표 오창규이다.

93년 수배가 되어 올해로 6년째 도망자로 살고 있다. 8명의 수배자들이 8월9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해 지난 6일로 90일째 접어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수배 풀릴 날만을 고대하며 숨죽이고 살았다. 그러나 3·13, 8·15 특별사면에서는 수배자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지나갔다. 기대가 과했는지 몰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역대정권과는 달리 양심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까지 4백여 명의 양심수와 66명의 수배자들을 가둬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양심수들의 사면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수는 쓰지 않는 준법서약서를 양심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지키려는 것에 다름없다. 악법철폐를 비롯한 사회모순을 척결하는 운동을 해왔던 양심수들에게 양심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영삼정권도 93년 3백10명의 수배자들을 준법서약서 없이 수배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은 반성도 없이, 준법서약서도 쓰지 않고 사면되었다. 역대 독재정권이 헌법에도 명시된 정치, 사상, 결사, 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해 양산된 수많은 양심수, 수배자들을 국민의 정부라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66명의 수배자들은 김영삼정권의 실정을 비판한 양심세력이다. 물론 부족함이 많은 청년들임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새 정권이 과거독재 정권과 다른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당장에 양심수를 석방하고 정치수배자들의 수배를 풀어주어야 한다.

오창규(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3학기)

한국대학신문 1998년 10월 27일 11월 21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를 찾아

자식 사랑에서 정치 수배해제를 위한 투쟁으로

인권요구단 등 작성, 김대중 대통령 면담 추진

"건강하면 지내요. 이제 부모들도 함께 하라. 보고 싶구나." 자식들의 투쟁에 부모님들도 동참했다. 지난 16일(금) 조계사에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수배 온 66명의 수배자 부모님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수기협)를 결성했다.

수기협은 지난 8월 9일부터 김 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 및 집행부 8명의 부모님들의 '농성자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했다. '농성자 학부모 모임'은 농성자들에게 필요한 옷가지와 생활용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자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2달여간을 감친 농성과 만남을 통해 자식을 보호하는 방법은 양심수의 정치 수배해제' 밖에 없음을 알고 수배해제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

에게 만원서도 보냈다. 또한 민기협에서 주장하는 매우 목요집회에 참여했다. 또 오는 31일(토) 있을 민권대동제, 8일(일) 있을 민중대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농성단이 농성 100일째 되는 오는 11월 15일(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단 조계사에서 81일째 진행 중이다.

이정수(77년 서울대 농대 부학생회장)의 아버지가 이종택씨는 "제 아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며, 이 나라를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까지 만들지도 않았습니...

집회 참여, 거리 서명전, 대통령 탄원서 등 제출 수기협의 부모님들은 거리에서 정치 수배해제를 위한 서명도 받고, 대통령

고 함반한다. 불의에 항변했던 사람들이 오려도 망다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더 이상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원주이강)

려 열심히 일하지만 돌아오는 댓가는 너무나 하찮고 작기 때문입니다. 극구 만류하던 제계 영수는 "농부의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지금의 이 부당함 투성이인 농촌을 제 손으로 반드시 살기 좋은 농촌으로, 대우받는 농부로 만들겠습니다"라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남에게 모범이 되며 착한 아이로 자란 영수는 햇빛이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고 살아야만 하는 지하 단칸방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부모 제삿날, 6월 모내기 때, 사과 수확기에는 매년 집에 와서 집안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집에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다녀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 간부라는 이유가 죄목이 되어 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수배생활 시작 후 집에 전화도 안하던 아들 녀석이 사흘이 멀다하고 전화해서는 "엄마, 아버지 저를 생각한다면 김대중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뽑으세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던 영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믿고 또 믿었던만 대통령이 되신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아들은 1년 전과 같이 변함없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과 올 설을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빈 듯한지...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것을 쥐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애비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미어지는 듯한 그 심정. 수배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식의 심정을. 지난 1년여 동안은 도무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시려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을, 아니 자식의 심정까지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으며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며 이 나라를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까지 만들지도 않았습니. 8·15 때는 살인자도, 국민의 돈을 수십 억 횡령한 자도, 도둑질을 한 자도 모두가 사면이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 사람들보다 제 자식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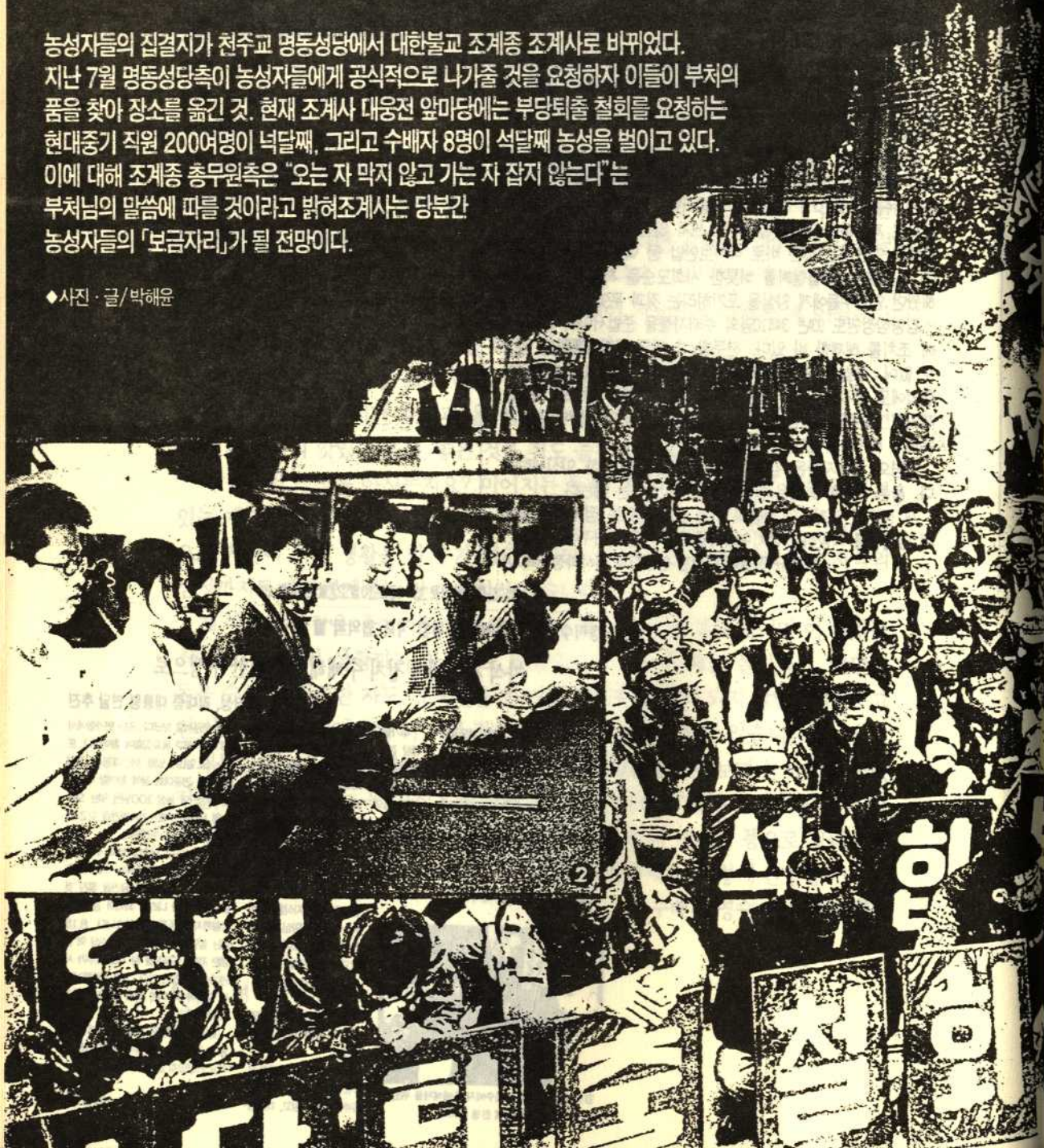
대통령님! 지난 명절에는 아들을 생각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 추석에는 꼭 자식님과 함께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편안히 숙של 수 있게 이 애비의 품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제 막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수배자 영수 애비 올림

#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잡지 않는다”

농성자들의 집결지가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로 바뀌었다. 지난 7월 명동성당측이 농성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이들이 부처의 품을 찾아 장소를 옮긴 것. 현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부당퇴출 철학을 요청하는 현대중기 직원 200여명이 너달째, 그리고 수배자 8명이 석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측은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잡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조계사는 당분간 농성자들의 ‘보금자리’가 될 전망이다.

◆사진·글/박해운



① 장기간의 농성으로 절 곳곳에 농성자들의 빨래가 널려 있다.  
 ②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농성자들.  
 ③ 대웅전 앞에는 노숙을 위한 천막이 마련돼 있다.



조계사 농성단  
 현대중기  
 40



# "함께 한 동지들에게"

나 이렇게 쫓기고 쫓겨도  
만나는 이마다  
미워하는 이 없더라  
보는 이마다  
반갑다 맞아주고  
염려해주고  
믿어주더라

■ 유병문의 '수배일기' 중

## 함께 한 동지들에게

6년여의 수배생활

# 수. 배. 자

그리움, 투쟁 그리고 희망!



농성단장 오창규

생각할수록 가슴아프다. 1997년 12월 18일 제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일!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변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승리라고 기뻐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수배자들이 고단했던 수배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마지 않았다. 이제 다들 귀향하면 가슴 펴고 당당히 그리운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고 가슴 뜨거이 동지들을 부둥켜 안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98 무인년 새해 아침!

난 관악에 올라 저 멀리 남쪽 하늘을 응시하며 마음으로부터 큰절을 올렸다. 막걸리 한사발 벌컥 들이키고 다시 남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았다. 희망이 솟아 올랐다. 그리고 집을 꾸러기 시작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당시 5년 수배생활을 함께 했던 나의 벗집을 챙겨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3·13특사를 지켜보며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뒤바뀌었다.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남대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모임을 꾸리고 8·15 특사 때를 겨냥하였다. 하지만 수배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좋다! 그렇다면 농성투쟁이다! 내게 남아있는 열정과 수단, 모든 것을 내걸더라도 정치수배 해제라는 우리의 목표를 쟁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했고, 정성이 부족하다면 정성을 들여야 했다. 저 하늘을 향해 인간의 공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둥거렸건만.... 결국 배반감 뿐이었다. 이런걸 위해 정권교체를 희망했는가? 이런걸 보자고 청춘을 바쳐가며 정권교체 투쟁을 하였는가? 허탈하고 분노스럽다.

농성 101일째! 수배해제의 전망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다면 찾아 나서야 하겠고, 주저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인부터 시작하여 나를 옥죄고 있는 구조들을 파헤치고 그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당당히 자유를 쟁취하고 싶다. 이 수배해제 투쟁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의 하나이고,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임이 분명하다.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이하려다. 이것이 그 동안 믿고 배려해준 분들에 대한 보답이요, 이미 자유없이 지내버린 소중한 내 청춘의 6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 정치 수배자란 누구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 수배자들은 시대의 모순과 질곡을 타파하는 데 자신의 청춘과 삶을 바쳐가며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화창시절은 조국의 진정한 아픔을 통절하게 깨닫는 과정이고 그만큼 조국을 사랑하기에 탄압과 수배라는 고난의 역정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의 대학생활은 조국의 분단과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새로이 눈뜨는 과정이고 조국과 민중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땀흘리고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단에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통일은 그저 관념적인 염원이 아니라 민족의 살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분단 위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참되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분단을 철거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행동의 과정에서 민족을 적으로 삼아야하는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 앞에 사심 없었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다." <<유병문>>

수배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산다. 검거, 도피, 끝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 등은 참을 수 없는 빈민과 고독한 시간들로 다가서며 자칫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해지기 쉽상이다.

'창살없는 감옥' 수배생활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일지도 모른다. 거리를 걸을 때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있을 때도 주의의 사람들을 의식해야하고, 식당에서 밥 한끼 먹을 때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의심해야한다. 어디를 가든 늦출 수 없는 긴장이 있고 떨려버릴 수 없는 불안이 있다.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건 설명하기 힘들만큼 스스로를 외롭고 고단하게 만든다. 어디 그 뿐인가? 곳곳에 붙어있는 수배전단과 불심검문은 수배자를 더욱 옥죄기도 한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이름도 잊고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야 했고 심지어 친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록도 태워 버려야했다."

'자유의 박탈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 또한 수배자의 처지를 잘 대변하는 말이다.

## '만남의 단절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한 집안에 어쨌든 실정법 위반-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도피중인 수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투철한 운동적 신념을 지닌 집안이라 할지라도 참기 힘든 수모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족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기운 것은,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자식의 열정적인 삶을 통해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서 결국 함께 투쟁의 대오에 동참하고자 마는 이 시대의 자랑찬 부모님상도 여기 저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 '대학에 다닐 자유마저 빼앗기다'

나는 학생운동과 인연을 맺은 관계로 대학입학 9년만에 졸업을 했다. 하지만 수배자의 처지였던지라 졸업장에 가보지도 못했다.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사각모를 쓴 자식의 모습을 보고싶어 하실 것이다. 자그마한 기쁨 하나 부모님께 안겨드리지 못했다. 대신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단 둘이서만 대학 졸업증 수여식을 가져야 했다. 그후 수배생활을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결의하여 96년 전남대 대학원에 입학하였지만 대학원 진학 3년동안 겨우 1년과정만을 마쳤을 뿐이다. 지금은 농성중이라 지금도 사람대신 돈이 강의실에 나가고 있으니 없는 살림에 기가막힐 노릇이다.

수배자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다. 하지만 기나긴 수배생활이 때론 한 사람의 기본적 품위를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떨정한 한 인간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또는 직업인으로써 살아가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은 누적되는 세월만큼 그만큼의 무게로 다가설 때가 적지 않다. 친구들이나 선후배와의 단절은 그들과의 소원함으로 종종 드러나기 쉽상이다. 내 경우만 하더라도 수배생활 6년동안 그 많은 지인들의 결혼식장에 매년 참석하지 못했다. 딱 한번 그것도 정권교체 이후에 친구 결혼식 사회를 본적이 있었는데 비로소 내가 친구의 도리를 한것같아 참 기뻐던 적이 있었다.

수배자의 대인관계에서 이성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수배자를 애인으로 둔 사람의 그 칭칭 휘어 감기는 그리움의 정을 무엇으로 표현하리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과 그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기위한 애인의 남모르는 투쟁은 보이지 않는 또하나의 수배투쟁이다. 그래서 애인을 준수배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수배자인 애인에게 용돈을 전달한 것이 죄가 되어 옥살이를 한 아가씨도 있다. 그 아가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수배자인 애인은 면회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밤늦게 교도소다 보이는 도로 건너편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는 애뜻하다 못해 서글프다.

우리 조계사 농성단에도 그러한 준수배자들이 찾아와서 그동안의 이별을 만회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짬짬이 사찰내에서 데이트를 하며 못다한 회포를 풀기도 한다. 그래도 지금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들이라고 한다. 100일이 넘는 장기 농성투쟁과 그 뒷바라지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정치 수배자들이고 그 애인들이다. 누가 저 순수한 사람들에게 평생 아물지 못할 그리움의 상처를 남겨 놓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 '형사들이 가족을 괴롭힐 때 참기 힘들어'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기관원들의 끈적거리고 혐오스러운 회유와 협박은 수배자들이 받는 탄압의 대부분이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파괴하는 일종의 공작으로써 결국 그들은 가정과 괴범이 되는 것이리라.... 특히 한총련 대의원들의 가족에 대한 기관의 탈퇴공작은, 부모님이 식칼을 들고 자식을 협박하고 과년한 딸의 뺨을 후려갈리게 만드는 등 상식밖의 사태를 야기시키고 다닌다. 진정 역사를 바로 세워보고자 제 한몸 아낌없이 바쳐서 투쟁하였던 정치 수배자의 가족들, 정의롭고 대바른 자식을 둔 죄아닌 죄 때문에 이시간도 모진 고통을 겪고있을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 시대가 지향하는 바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운 당신들의 자식들이야말로 진정 아낌없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침내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의연한 사람들로 성장할 것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 '마음과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은 수배자 수칙의 기본'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여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인간적인 괴로움에 까지 치달고 만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서부터 소외감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도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땐 서로 의지라도 되지만 일단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상을 잘 조직할 필요가 있고 스스로 영양보충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그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을 꾀하는 자기조절통제 능력의 필요성이다. 무릇 수배자는 생각 이상의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혼자된 처지에서 자칫하면 심하게 건강을 해치는 수가 다반사이다.

나같은 건강체도 수배생활 중에 위궤양이라는 몹쓸 병을 얻어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사람이 체력이 쇠진되면 정신력이 온전할 수가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의지력이 박약해지면 신념도 보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며 예기치 못하는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참고로 수배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전호흡을 통한 '참선'을 권장하는 바이다. 수련정도에 따라 철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참선의 효과이다.

### '투옥되신 아버지께 면회가지 못하는 수배자'

일반적으로 동지들과 관련된 슬픈 소식을 접할 때이다. 그러니까 97년 9월 중순경 추석연휴기간이었다. 신문을 뒤적이다 '한총련 투쟁국장 김 준 배 사망'이란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 도저히 실감이 나질 않았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무작정 산으로 뛰었다. 비통했었다. 준비는 내가 93년 남총련 의장 시절 단위 대학에서 끌어올려 사업을 맡겼던 나의 구체적인 후배 동지였다. 물론 준비도 수배자였다. 과잉 검거작전에 밀려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는 것이다. 그날 수백리 길 떨어져 있는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한없는 비애감에 젖었던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가족들과 관련하여 가슴아픈 소식을 들을 때도 무척 견디기 버거운 일이다. 부모님의 영면하는 순간마저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소식을 알고도 찾아뵙지 못하는 수배자의 심경은 어떠하겠는가? 임수경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는 충과 효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그 말을 수배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수배중에 아버지의 투옥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아파 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양심수 두 아들들은 수배자! 이것이 당시 우리집안의 모습이었다.

### '눈물겨운 투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발을 동동 굴렀다'

애써 일구어놓은 학생회 공동체가 탄압으로 파괴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의 투쟁소식을 접할 때이다. 특히, 96년 '연대항쟁' 과 97년 '한양대 사건'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 탄압국면에서 십수년 목숨을 내걸고 고군분투하여 쌓아올린 학생운동의 재부들이 파괴되고 그것을 지키려는 후배 동지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장외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발을 동동 구르는 아타까움으로 기억된다.

###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 때 가장 큰 힘'

수배생활도 하나의 실천투쟁이고 보면 거기에는 힘들고 안타까운 일들만 있는건 아니다. 부모님이 발전적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볼 때,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동지들의 투쟁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타향 살이 도피생활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반겨주는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확인할 때, 우리 수배자들은 무척 큰 힘을 얻곤 한다. 이는 내가 선택한 이길에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라는 공동체속에서 확인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고 동참하실때가 무척 힘이된다. 조계사 농성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수배자가족협의회'라는 부모님 단체를 조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부모님들의 지지·지원은 단순히 정신적인 의지차원의 수준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공안 기관의 학생회 공동체 파괴 공작과 학생회 일꾼들에 대한 무자비한 검거 선포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투쟁으로 개척하는 후배 동지들의 면면은 우리 수배자들을 한편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한편으론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96년 늦가을 전남대 학생회 선거, 그해 6월부터 전남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8월 연대항쟁, 9월 잠수함 사건 그리고 11월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직사건 등으로 차기년도 학생회 건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이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여 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우리공동체를 사수하였다. 그때 잠깐 귀항하여 밤에 학교에 들어갔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선거 개표 상황을 확인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교정을 빠져나오던 그때의 그 기분을 수배자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무릇 수배자의 생활공간이란 일정하지가 않다. 변화하는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요하다면 순발력 있게 장소를 옮겨야만 보위투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는 보위투쟁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나의 6년 수배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우리 민중들의 건강한 인정 덕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에서는 여러 교수님들, 학우들, 식당 아주머니들, 관리 아저씨들의 관심과 지지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전국을 떠돌아 다닐때도 공간이 바뀌고 지방색은 달랐을망정 어디에서나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들은 다 있었다. 이 순박한 사람들이 힘이 되었다. 무척 많이.....

## ‘사색과 실천으로 단련된 수배생활

자신의 신념과 신변을 보위하는 수배투쟁은 작게는 자신을 담금질하고 버리는 주체의 단련과정이고 보다 크게는 민족민주운동에 복무하는 투쟁인 것이다. 저나름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는 수배투쟁은 여러 가지 성과점 또한 적지않게 남긴다. 바로 이러한 성과점들이 수배투쟁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지난한 수배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지켜내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척박한 처지를 오히려 단련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승리적 신심을 안아오기에 충분하다.

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보위투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학생회 공동체 사수와 동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 내 첫째가는 수배투쟁의 목표였던 것이다. 김영삼 집권 5년을 넘어 김대중 정권 1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자부심을 조용히 음미해본다. 또한 나의 수배투쟁 6년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체감 혼미속에서 자아성찰을 전개해왔던 시간들이었다. 수배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아마 '거꾸로 세상 들여다보기' 정도로 표현하면 적절할까?

명절이면 더욱 고독해지고 사람의 숲속에 은신하여 살면서도 행여 자신의 처지가 드러날까 두려워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져야 하고 취업, 결혼 등의 일반적 가치들이 이미 내 손에서 멀리 벗어나 있고 그래서 더욱 삶에 초연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사색과 실천을 통해 수배자는 보다 단단한 인격체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수배자를 쫓기는 자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수배투쟁이라는 하나의 장정 속에서 지난 시절 운동을 실천적으로 총화하고 다음 단계를 예비하여 자기 준비를 다져나가는 것이 정치 수배자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수배투쟁 6년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은 나의 은인이요 동지들이다. 난 내 평생 그들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지향하는바 나의 가치지향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모어나갈 것이다.

## 힘주어 정치 수배해제를 외쳐본다.

한국 학생운동은 이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비판세력이고 건전한 사회운동 세력이다. 역사적으로도 조국이 외세에 신음하고 독재정권이 민중을 도탄에 빠뜨릴 때도 드팀없이 일어서 싸워 무너져 내리는 조국의 하늘을 짊어졌던 구국의 대들보이다. 그들을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물론 학생운동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다소간 무리가 따랐더라도 그것은 이 사회가 통크게 포용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의 민주와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들의 쫓대만큼은 이 사회가 고무하고 발양시켜 주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전성을 음해하고 마치 현 우리 사회의 질곡상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양 마녀사냥을 일삼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듯 비이성적인 학생운동 탄압과정에서 양산된 피해자들 중의 한 집단이 우리 정치 수배자들인 것이다. 수배해제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면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를 받은 이영수의 다음과 같은 다짐은 수배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순박한 내 누이들과 어머니의 가슴에 맹세코 저는 그 어떤 이적세력이 아니요, 단지 자국패권을 위해 조국을 강탈하려는 적들과 그들을 이롭게 하려는 부정과 부패의 정권에 대항한 진정 이민주세력임을 확신하기에 자기반성과 혁신은 있되 부당한 정권에 대한 굴복은 절대 없을 것이며 더욱이 그 형태가 구속과 수배같은 폭력적 방식이라면 나는 오히려 역사속에 뚜렷한 수배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 다시 수배자를 위하여

농성 101일째!

김영삼 정권 시절을 관통했던 5년간의 수배생활을 승리적으로 갈무리하고 뚜렷하게 인내의 단 열매를 맛보고자 했던 나의 소박한 꿈이 김대중 정권하에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양심과 지조를 지켜 명예로운 자유를 얻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다고 누굴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고 수배해제 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투쟁이 마침내 조계사 농성투쟁으로 귀결되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에선가 불신검문을 피해다니며 명예로운 자유를 찾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 수배자들과 앞으로도 우리의 뒤를 이어 이 길에 들어설 수배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서산대사께서 이런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눈은 들길을 걷는 사람이여 갈팡질팡 걷지 말아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 이라니..." 오늘 우리가 인락과 평온의 길보다 난관과 시련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운동가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길로 들어설 소중한 후배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작은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으리라....

거듭 강조하건데 수배자는 수배자 다워야 한다. 혹독한 시련에 직면할지라도 그 시련을 양식삼아 자기 발전을 도모할줄 알아야 한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라볼 때 두눈에 눈물 흘려보이지 않은 수배자는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눈물 닦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다시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규율사수는 보위투쟁의 가장 핵심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정신을 추스리고 발언을 삼가며 걸음걸이를 다잡아야 하는 것이 수배자이다.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 적절한 영양 보충과 규칙적인 체력단련을 조직하여 신념의 그릇인 육체를 튼튼하게 조각할 수 있어야 진짜 수배자이다.

용천설악 버르는데 시련이 으뜸이고  
아기룡도 시련먹고 허물벗어 승천하니  
타는강산 침노하는 강철발톱 치고배어  
만백성 지켜내고 단비내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첫눈을 보았다. 108일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있는 날에 첫눈을 보았으니 아마 12월 총력투쟁의 시기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 어둠깊은 곳일수록

## 자유의 햇살은 더욱 간절하고

■ 유병문 (96년 동국대학교총학생회장, 4기 한동련 직통일위원장)

**가**을이 깊어지나 보다 유난히 아침 어께가 시린 걸 보니. 70일에 가까운 한뼉잠은 쉬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 기상을 할 때 마다 마치 산을 걸머지고 일어나는 기분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진 않는다. 어쩌면 싸움은 이렇게 순간에 있는지도 모른다. 고단함을 느끼는 그 순간 이부자리로 파고들거나 머뭇거리다면 이보다 더 추운 겨울에는 더 힘들지 않겠는가? 편함과 안락을 찾아 조금이라도 물러서게 될 때 다음에 더 많이 물러서야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물러설 곳이 없어지리라.

얼마 전에 감옥에서 온 편지가 문득 생각난다. 가을은 가을로 있다기보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있다는 말, 그 말을 읽는 순간 감옥 안에서는 바깥에서 느끼는 계절의 순환마저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 싶어 가슴 한끝이 시렸다. 언제나 신념과 양심을 움켜쥐고 가는 애국의 길은 다 그랬다. 통선대 활동에서, 출범식에서, 범민족대회에서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를 베개 삼고 조국의 하늘을 지붕 삼아 잠들고 잤다. 아마도 일신의 안락을 추구했다면 거리로 나가진 않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에 몰두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양심이 이르는 대

로 이 길을 걸어왔다. 그것이 비록 나 스스로 짐져야 할 것들이 많은 길이라 해도 후회하지는 않는다. 현실이 비록 고난이라 해도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답고 아름답게 사는 것일 테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활은 비닐천막을 걷어올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어둠에 갇힌 우리들의 삶에 희망의 환한 햇살이 들이치도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코 염원만으로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한뼉잠을 자면서 우리의 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수배자들이 있지만 의외로 그들은 잊혀지고 소외받고 있다. '양심수'는 모두가 잘 알아도 '수배자'는 잘 모른다. 수배자들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외롭고 고단하게 싸우고 있는 양심수 들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문제를 몰라준다고 투쟁하거나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통하여 수배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배해제를 가장 절실한 이해와 요구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시작한 조계사 농성 70일이 가까워져 오는 동안 집회며, 시와 노래의 밤, 신문발행, 언론홍보 등 숭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힘껏 싸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의 싸움에

서 뭔가를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싶다. 사람이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시련도 마다 하지 않는 존재니까.

죽비소리에 맞춰 108배를 올린다. 전엔 아침 10시에 하던 것을 요즘은 기상 직후 바로 하고 있다. 처음엔 새벽에 하는 것이 조금은 더 힘들었지만 이것도 서너 번 하다보니 익숙해지고 외려 더 좋은 느낌이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 시작하는 108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하늘빛이 밝아져온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하고 나면 잠시 앉아 참선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하루를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시작하니 참 좋다. 가끔 새들의 울음이 귀를 정갈히 씻어주는 것도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싸르락싸르락 싸리빛자루 소리. 매일 대웅전 마당에 떨어진 낙엽이며 쓰레기들을 쓸면서 내 마음의 허접쓰레기들도 쓸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리저리 팔을 놀릴 때마다 그 만큼 깨끗해지는 마당만큼 내 마음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당을 쓸다보면 금새 마당이 맑아진다. 서너 명이 함께 하니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모양이다. 무슨 일인들 그렇지 않겠는가? 서로가 맞잡고 하면 할수록 일은 더욱 멋드러지게 되는 법이니.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하리라.

하루 세 끼의 식사는 농성생활의 작은 기쁨이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에 병환으로 고생하신다는 계훈제 선생님 소식이나, 김남주 시인의 죽음 등등을 상기해보면 우리들에게 건강이야말로 애국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놈들은 등따시고 배부르게 좋은 것들만 골라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탓에 얼굴에 기름이 찰찰 흐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애국자들은 끼니도 거르고 잠도 편히 못 자 내이가

들면 병을 앓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신의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겠다. 언제인가 조국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쓰일 수 있도록 말이다.

9시 조회는 전체 일정과 자기 맡은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요사이에는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시사해설을 한다. 그 속에서 세상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몸은 조계사 안에 갇혀 있다해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 세상을 다 품고도 남아야 하니까. 오늘은 부모님들이 올라오시는 날이고, 내일은 집회가 있는 날이라 더욱 바쁘다. 내가 한 걸음 늦을 때 우리 모두의 걸음이 늦어진다는 걸 또한 명심해야겠다.

저녁이 되니 부모님들이 한 분, 두 분 오신다. 수배자 자식을 두고 하루들 맘이 편하랴 마는 그래도 오늘같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날은 얼굴에 웃음이 떠나시질 않는다. 뭔가 해주지 못해 안달하 시는 부모님들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수배해제라는 투쟁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허나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싸울 때라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늘 부족하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족을 배우고 전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 희망이 언제 그저 주어진 적 있던가? 승리가 투쟁 없이 우리 가슴에 안긴 적 있던가?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내일 이면 수배자 가족 협의회를 정식으로 꾸리고 활동을 하시려하는 것이다. 부모님들께서 자식의 문제로 두 팔을 걷어 부치면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음식장만이다, 잠자리 마련까지 하느라 분주하다. 그래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께 따순 밥을 지어드린 적 있는가? 잠자리 한 번 살피드린 적 있던가? 수배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이다. 가족모임은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피곤할 하실 텐데 그래도 자식들의 문

제라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시지 않고 계셨다.

부모님들 잠자리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느라 12시가 다 되어버려 오늘은 종례를 못했다. 그래도 태산같이 쌓인 내일의 집회 준비며, 국회면담, 선전전 등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 일찍 잠에 들어야지. 머리 속의 많은 사람보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내 몸을 놀리는 일이 중요하니까

**다** 음날... 여느 아침보다 분주한 아침이다. 부모님들과 식사 때문에 두 상을 차리고 국회에 갈 차를 부르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 면담 준비까지. 일이 많을수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하나 하나 노트에 기록하면서 일을 정리해야 빠뜨리지 않는다. 일의 중요성에 따라 선후차를 정하고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의 순서도 정한다.

10시 총무원 사회부장 스님과의 면담에 부모님 10여분이 들어가셔서 불교계에서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줄 것과 부처님 품에서 보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에 자식들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모습이 한 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자식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도 이 땅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시고 그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혹 이런 생각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 나만의 관념은 아니어야 할 텐데 ...

부모님들이 국회로 한화갑 총무를 만나기 위해 떠나시고 몇 사람은 집회 실무 준비에 바쁘고 또 몇은 오찬회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로 일일

이 확인하느라 바쁘다. 그나마 오찬회동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부모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다. 한화갑 총무가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질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주 촉구하고 확인하면서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수배가 가족 협의회(수가협)이 결성되었다. 준비는 미흡했지만 공식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이어진 집회에서 삭발을 했다. 부모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나 3.13, 8.15를 인내와 기대로 기다린 뒤 또 지금까지 두 달이 넘는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정부당국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 독단과 독재, 부정과 부패를 일삼은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수배 받은 것도 서러운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까지 찬 바닥에서 한뼘잠을 자며 농성을 해야 하는 것이 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한참을 싸워야 한다. 눈이 내리고 겨울 삭풍이 불지라도 승리를 일궈낼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머리칼 같은 마음들일랑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유의 햇살이다.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닌 어둠을 밝힐 등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 등불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투쟁 속에서 피어날 것이다. 믿음인 굳센 자에게 역사는 승리로써 그 답을 주리라 생각한다.

**수배해제**

사랑하는 막내 아들,

순이에게 ...

순아! 집에 들어 오지 못한 지 얼마더냐. 2년으로 접어들고 있는가 보다. 그동안에 광주에 계시는 큰 어머니, 여수 숙부님, 울산 사촌형이 돌아가셨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님은 너의 이름 몇 번이고 부르다가 생을 마감하셨다. 네가 없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재산을 다 날렸던 악몽같은 광주항쟁 때도 오늘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경북 구미에 있는 형, 서울에 있는 큰 누나 빼놓고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가족중에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어도 집안이 망하는 것을 많이 봤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게 항상 타일렀다. 우리 집사정이 밑바닥에 와 있으니 평범하게 살자고. 그럴 때마다 순이 너는 항상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고 3이 되어서 고대에 지망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가출한 적이 있었지. 고대에 입학했다하면 학생운동을 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고통의 틈바구니에 들어갈 것 같아서 밀렸단다. 외가 친척중에도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결국 네 고집대로 고대를 입학했고 학생운동도 하고 있구나.

어제는 민가협 목요일집회를 참가하기 위해 탑골공원에 갔다가 조계사에 들렀다. 창살 없는 감옥, 허름한 천막에서 역울한 수배 벗으려고 삭발까지 한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당당하고 밝은 눈망울이 이 나라 장래를 짊어지고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활기가 넘쳐 흘렀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들은 밤에만 볼수 있지만 조계사 천막속에서 농성하는 8명의 농성단원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볼수 있는 고귀한 샛별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감된 동안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오신 애국자만이 볼수 있는 별들이다. 천막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별들이 자유로운 한국을 비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털어 놓다가 밤이 늦어 종각 전철역으로 향했다. 노랑진에서 내려 마을 버스를 타고 집에 왔더니 집은 너무도 적적했다. 언제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너의 모습을 볼수 있는지 그리움이 복받쳐 오르더구나.

10월 20일에 수배자가족협의회 가족들이 대통령께 올린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문서가 한 회원집에 도착했다고 하니 우리 집에도 올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 의

례적인 답변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기다려진다. 12월 쯤이면 수배가 풀릴 것 같은데 너의 생각에는 어때냐? 기대와 절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기닥 희망이 있을라치면 쉽게 넘기지 않고 들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배자가 되어 가족과 대화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지 일년이 넘어섰다. 학생회장 임기는 끝난 지 오래고 졸업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배해제는 커녕 지수만 하라고 하니... 법이 잘못 된 줄 알면서도 너를 위해 엄마는 정부의 한총련 탈퇴 조치에 따르라고 권유했다.

탈퇴서 쓰도록 설득하라는 담당 경찰 말을 듣고 너를 찾아갔었지. '수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받아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인데 책임과 의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된다' 고 말했다. 그래서 그 때만을 기다렸고 대통령 취임식을 기다렸다. 취임식 끝나고 3.13특사, 8.15특사에 가족들은 기대만 했을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적인 노벨평화상의 후보에 올랐다니 어떻게든 수배해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내가 탈퇴서를 쓰지 않은 것이 현명했던 것 같다. 감옥에 구속되어 준법 서약서를 쓰고서 가석방된 학우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더구나. 준법서약서와 한총련 탈퇴서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양심과 다르게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고통일 것이다. 오늘도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은 단식에 들어갔구나. 농성한다 해서 집마다 경고장이 날라오니 그 가족들의 고통도 더해지더구나. 너도 탈퇴서 쓴 수배자들에게는 특별히 용기도 주고 항상 다 같이 사랑하고 모범적인 인격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수배자 자식덕에 소녀시절로 되돌아 간 육십념은 어머니

이 엄마는 내가 미웠다. 가지 말라던 고대에 입학해 먼 등 학교길을 오가니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늘 불만이었던다. 그러더니 학생회장에 출마하고 수배자가 되어 엄마 마음을 애태우게 하니.. 하지만 고통속에서도 희망을 있다더니 내가 꼭 그런 격이다. 수배자 자식을 둔 덕에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꿈 많고 순수했던 소녀 시절로 되돌아 가는 느낌이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행사에 참가하면서 말이다.

10월 16일엔가 민권공대위 사무실 입방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근래에 출소한 희망새가 통일 노래를 부르더니 나에게 답가를 부르란다. 가요라고는 불러 본 적이 없는 내가 난생 처음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노래를 불렀단다. 네가 녹음해 준 테잎에 들어 있는 노래 알고 있지. 자나 깨나 네 생각에 잠겨 '사랑을 위하여' 란 노래가 담긴 테잎을 몇 번이고 듣다가 그 노래가 익숙해졌는가 보다. 주위 사람들이 재창까지 해주어 50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부르던 38선이란 노래도 불

렀다. 이게 인간 재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 이런 기쁨은 한 순간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집에 색다른 음식이 있을 때면 네 생각에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곤 한다. 한총련 대의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새 정부 답지않게 한총련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지 욕이 나올 정도다.

### 보랏빛 수건을 쓰고

탈퇴서를 쓰라며 너밖에 모르던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 생각 해봐도 용하다. 모두 주위 사람들 덕이다. 처음 집을 나서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신문광고를 우연히 보고 민가협에 전화하던 날.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민가협에 전화를 걸어 수배자 가족도 참석할 수 있는냐고 물어서 서울역 광장에 섰다. 보랏빛 수건을 쓰고서 박노해 사진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쩌나 안절부절할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할지 수줍어했다.

그렇게 첫발을 내디딘 후 매주 목요일마다 탑골공원에 가는 일은 나의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 수배자들의 얘기를 해주지 않아 섭섭했는데 조계사에서 수배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면서는 다른 수배자 부모님도 함께 참가하고 집회에서도 수배해제에 대해 말을 해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민가협과 여러 인권단체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가는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민주화 원로 인사님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셨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 자식을 귀중한 보배로 생각해주시는 사람이야말로 이나라의 애국자일테도 그 말 한마디는 나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확 풀어준다.

### 서울역 광장에 처음 서던 날 수줍어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적도 있다. 김대통령취임식 직후로 기억되는 어느 날, 고대 학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써가지고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오라는 연락을 했더구나. 행여 순이 네가 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속에서 부산스럽게 써가지고 갔다. 그런데 순이 너는 없고 내가 쓴 글을 학생들 앞에서 읽으란다. 집회에 처음 와본 나에게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발길을 돌렸다.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니 한 여학생이 내가 쓴 글을 낭독하더구나. 그렇게 들으니 또 다른 맛이 느껴지더구나. 그 여학생이 누구인지도 아직까지도 모른다.

민가협 목요집회 때마다 고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없다. 그 때 만해도 고대학생들이 활기차게 활동했다. 고대 학생회관에 가서 보면 예전 같지 않아 아는 얼굴도 보기 힘들고 적막감마저 느낀다. 너를

찾아 헤매다 그냥 돌아오는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즈음 조계사에 고대 학생 10여이 찾아왔다고 하니 흐뭇더구나 느꼈다. 작은 형 강의를 듣는 고대 법대 후배가 너를 선후배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호평을 하더라는 말을 듣고 그나마 걱정을 덜기도 했다. 어제는 김종맹목사님께서 고대 초청강의에 가셨다가 너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잘생기고 이름 그대로 너무나 순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하시더구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냐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한총련을 탄압하여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망쳐 놓은 전두환 노태우는 한마디 사과없이 석방되고 김영삼도 모두가 잘 살고 있는데 기대했던 새정부 국민의 정부는 풀어주어야 할 한총련 학생들을 그대로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김영삼 정부 때의 정치수배자들이 모여서 정치권과 법무부에 수배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수배자 부모들이 가끔 모여서 무엇이라도 함께 할수 있으니 더욱 안심이다.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불교 대책위, 한화협, 수가협, 민권공대위, 민가협 활동에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 덕분에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슬픔과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어 평화가 나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다.

순이 너는 어릴 때에 별이 그려진 옷만을 사달라고 했었다. 조계사에 있는 별들이 보고 있노라니 그 생각이 새삼 떠올랐다. 천막에 잠깐 앉아 있어도 방문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가 길어져 저녁식사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 우리집 밥보다 훨씬 맛이 있다. 그 때마다 너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에 잠긴다.

네가 수배된 이후부터는 말도 많아지고 펜을 잡으면 무엇인가 쓰고 싶은 충동에 못이겨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끝이 없이 써내려가는 버릇이 생겼다. 희망찬 앞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펜을 놓겠다. 부족한 엄마를 용서해라.

1998년 10월 28일 수배해제를 기다리는 엄마

## 무심한 아들이 어머니께 올립니다.

수배해제농성장에 와서야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먼저 뵈고, 읽는 편지라 감회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배중에도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그 높은 패륜아"라며 경찰들이 떠돌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째 전화도 한 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학생운동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 지금 후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적 전화도청이 난무하는 세상에 수배자로서 흔적을 남기고, 연락의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을 더욱 괴롭힐 공안기관의 횡포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과 민중, 더불어 가족에게도 잘 하면서 운동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집안에 너무 무심한 것이냐"라는 따끔한 지적에는 한없이 고개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과 민중을 위해 일한답시고 몇 년째 행방불명자로 집안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저는 가족에게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공안경찰은 저에게 앞의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미 장례식장에 깔린 그들로 인해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한 채 빈방에서 불효자라는 자책으로 눈물 흘리던 정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동구밖에까지 진을 친 그들로 인해 아버님의 사신이 묻히고 있는 산의 건너편에서 눈물로 큰 절 올렸던 재철이의 한맺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배자는 진정 조국과 민중 이전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불효자임을 알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수배자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면서 뭐라 위로하지 못하고, 돌아서며 부모님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어느날 거리에서 우연히 사든 신문에서 수배자가족협의회가 결성되었다는 광고를 보며 당신의 이름을 회원 명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속상하심이 크구나하고 무심코 지면을 넘어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공동대표단에 속하신 어머니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저는 어머니와 자식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진장 기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구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수배해제농성의 승리 이후 조국과 민중, 가족에게 모두 잘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니, 지금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같은 운동권(?)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더 많이 살아오신



어머님께서 조국과 민중의 역사를 많은 생활속에서 저보다 피부 깊숙히 아시기에 부당히 탄압받는 자식을 구함과 함께 민인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투쟁에 나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의 말에 또박또박 이치있게 따지시는 민 가협 영선이 어머님에게 경찰이 '헛똑똑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쩌면 진실을 아시면서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부패와 비리가 판치는 시국에 괜히 순진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 위해 하루 하루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깨끗한 척하는 '진짜 헛똑똑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미리 대응조차 하지 못한 위정자 같은 '삼류 저질헛똑똑이'가 아닌 진정 조국과 민중, 자신에게 당연한 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님앞에 결코 고개들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함은 어머님의 넓은 품안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사랑을 잇고, 세상 모든 민족이 포연에 잠겨도 선두에서 갈 길을 가는 청년아 네 한 몸 깃발이 되라." 나이에 관계없이 올바른 포부를 가질 때, 모두 젊은이가 되어 영원한 청년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님. 함께 청년되어 이 철없는 자식을 이끌어 주면서 역경에는 당당히, 순경에는 기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머님. 저의 이 마음이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족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또 어린애같이 만나자 마자 일장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힘들게 늦은 밤까지 식바느질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꽃다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항상 떠올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누나들도 생각합니다. 어머님 앞에서 못부르는 노래지만 한 번 부르고 싶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만큼 성실하지 못해서 당신의 속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지만, 그래도 항상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어머님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저로서 결코 조국과 민중, 가족에게 부끄럽지않게 살아갈 것입니다.

신념이 강하면, 운명마저 비켜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99일째의 수배해제농성단에 새롭게 결합한 저는 당신의 아들답게 성실히 농성투쟁에 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못난 장남 창희 올림

## "주장이 이닌들"

우리는 폭력을 보았다  
살인진압에 죽은  
수석이에 대해선 얼버무리고  
은폐하던 언론이  
날마다 일어나는 철거현장에서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아무 소리 없던 언론이  
날마다 대서특필이다  
몽둥이가 되어  
발길질이 되어  
우리들을 두들겨 팼다  
통일을 짓밟아댔다

■ 유병문의 '연세대' 중



# 수치스런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 이제는 끝장내자

민족민주운동 탄압의 수족, 분단과 독재와 함께한 국가보안법 50년! 그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다** 가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년이 되는 수치스러운 날이다. 이날을 기해 전국연합을 비롯한 민주단체와 국보법 철폐에 동의하는 세계 여러 단체들이 국보법 철폐를 위한 국제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전역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며 한국에서는 국회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지금 한총련을 비롯하여 범민련, 노동운동 단체, 각계각층 진보적인 단체들이 국보법에 의해 무차별적 탄압을 받고있다. 특히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철저히 탄압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국보법 근원과 그 역사를 낱알히 밝혀 국보법 철폐의 역사적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국가보안법은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제국주의 통치수단 치안유지법의 후예”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였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예방 구금령 등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등의 목적이 결합되어 형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48년 12월 1일에 만들어졌다. 여순항쟁으로 위협을 느낀 친미 반공세력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으니, 이 법의 반민족·반민주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법은 사사오입 개혁 이후 위기에 처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58년 12월 24일 경찰을 동원해 개악되기도 했다.

## “한국전쟁을 거쳐 진행된 분단의 고착화는 국가보안법 고착화의 역사이다.”

4·19혁명으로 탄생한 2공화국 하에서 잠시 폐지되었다가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곧이어 5·16 군사쿠데타로 성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화된다. 반공법은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요구라는 외적 요인과 근대화 및 반공주의라는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중앙정보부와 함께 법이라기 보다는 공포의 상징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자에 대한 용공조작을 통하여 술한 '관제공산주의자'를 배출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국가보안법 철폐!

1980년대에 들어와 5·17 군사 쿠데타세력이 주도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박정희정권 하에서의 반공법을 통합해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동안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했던 반공법의 폐지라는 모습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국가보안법에 흡수시킨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고양된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둔화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동구권의 몰락을 포함한 정세의 변화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을 계기로 하여 1991년 날치기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긴 하였지만, 그 골격에 있어서는 군부독재 시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국가보안법은 권력유지의 소중한 수단!”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 그 주된 적용 대상은 북한과 남로당의 지하세력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바로 다음 해인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이 11만 8천 여명에 이르렀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증명해주는 예이다. 한국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50년대 중반 이후 남한 내의 무장세력이 거의 사라진 후에는 그 존재 의의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유일한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진보당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박정희정권의 등장 이후 군부독재의 위력에 질려 시민사회의 정치·조직력이 미약했던 70년대 말까지 국보법과 반공법은 어떤 기능을 하였는가.

'인민혁명당' 사건(1964. 8), '통일혁명당' 사건(1967. 8), '인민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1974. 4),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1979. 10) 등에서 반정부적 조직들이 이 법에 의하여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반대파 정치인이나 소위 '재야인사'의 발언과 활동도 반공과 분단의 성역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 법으로 탄압받았다.

학생운동은 물론 반공이데올로기를 훼손하는 언론인, 작가의 활동도 타격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의 강의 내용,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내용까지도 문제삼아 처벌하였다. 심지어는 "6.25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 "공산주의는 방법은 나쁘지만 그 목적은 나쁘지 않다" 는 등의 조금이라도 반공·분단 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하는 사안은 처벌되었다. 전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선전 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입해도 처벌하였다.

## “국가보안법의 적용의 한계는 없다. 애국세력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80년대 전반기 독재정권은 미국의 광주항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으로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비판 학습을 하는 소모임들을 처벌하였으며 소위 불온서적출판·판매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였다. 85년대 중반 이후 국가보안법은 적용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여 사회운동조직들을 파괴하고, 진보적 사상을 전파하려는 활동을 탄압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88년 중반 이후로 촉발된 민간주도의 통일운동 및 '북한바로 알기운동'도 탄압하였다.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표, 문규현

국가보안법 철폐!

신부, 황석영씨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에는 합법적인 운동진영에까지 국보법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하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무차별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수백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한총련 탈퇴협박에 시달리며 수배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지 50년이 되었다. 시대와 역사발전으로 존립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존립기반이 무너진 법은 법적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국보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이다.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이 법은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그와 연계시키고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기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자기모순이다.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모순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 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12.12의 유엔총회 결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 지역에서 유일합법 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미 이를 받아들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은 다시 한번 북한이 합법적 주권국가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권이 미치는 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순 역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제66조 등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정책이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과 영토의 수복이 있을 뿐이다.

**“존립기반이 무너진 국가보안법. 이제는 끝장내자.”**

위에서 우리들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현시대 그 존립기반이 상실되었음을 보았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400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감옥에서 찬 겨울을 보내야 하고 300여명이 넘는 수배자가 찬바람을 맞으며 피해 다녀야 한다. 이 수치스럽고 악독한 상황을 더 이상 되풀이 할 수는 없다. 20세기의 마지막해 1999년, 통일 조국의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기필코 끝장내자.

**수배해제**

주장이 있는 글

#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철회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97

년 5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발생한 이석씨 치사사건을 빌미로 정권은 한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법원은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탈퇴공작과 비탈퇴 대의원에 대한 수배와 구속을 감행했다. 전국은 학생들에 대한 일대 검거 선풍으로 휘몰아쳤다.

이런 탄압속에서도 97년 대통령선거에서 4천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이뤄 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98년 6기 한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탈퇴공작과 비탈퇴 대의원에 대한 수배와 구속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이 6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로 판결하는 것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6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로 수배 구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6기 한총련 대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인 학생운동이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이런 초법적인 탄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한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당사자들이나 학생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이다.

한총련에 씌워진 이적의 울가미를 푸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전국민의 단결로 극복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이루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에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

**“반국가단체 개념은 이미 소멸되고 있는데도 오직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고집하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적단체라 함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말이다. 적은 북한을 가르켜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북한은 노태우 정권때부터 동족, 민족의 동반자 또는 통일의 상대방, 또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민족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라고 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북한을 적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여기고 있다. 이적단체의 모태가 되는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이 이미 소멸되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오직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고집하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과는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대화하면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하며 끈질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이며 앞뒤가 전도된 논리이다.

97년 11월25일 광주 고법판결문에서 "한총련의 주장, 남한사회 및 미국에 대한 인식, 통일방안, 타도대상이나 투쟁목표 및 투쟁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한총련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사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의 강령을 살펴보면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 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취지의 어느 곳에, 어느 표현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보이는가?

한총련의 10대 강령이 또 있다. 위의 취지를 더 부연하고 구체화한 것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 자주권 회복, 조국의 자주화, 완전한 사회 민주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래 연방제 조국통일, 학원의 민주화와 자주화의 실현,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타적인 문화 척결과 학원과 생활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의 건설, 학원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배척, 집단

주의 함양으로 개개인이 주인공으로 서는 학원공동체의 건설 등을 실현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한총련의 목적과 강령을 볼 때 이 단체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정의와 애국심과 민주화와 통일 열망에 피끓는 이들 청년학생들의 애국의 길, 민주주의 실현과 민족자주 통일의 길이 이적행위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기꺼이 이적단체의 소속회원이 될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은 이적행위를 하는 범법자가 아니라 애국, 민족자주 통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애국자들이다.

### "과연 어느 것이 진짜 폭력인가"

역대 정권은 한총련을 매도해 왔다. 한총련을 사회치안면에서 폭력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총련은 폭력집단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최루탄에 박해를 받으면서 돌을 던졌다. 사이비 문민독재 시절 한총련이 경찰당국의 폭력에 돌맹이와 화염병으로 맞섰다. 그것을 폭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한총련을 폭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남미의 돌 헬다 카마라 주교는 폭력을 현상 그대로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든 경찰력을 포함하여 폭우도 모두 폭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적 폭력의 경우 제1, 제2, 제3, 제4의 폭력이 있다고 했다.

불의하고 불평등한 제도는 제1의 폭력이고, 제1의 폭력에 신음하다 견디지 못하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못살겠다고 소리치는 폭력을 제2 폭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질서유지나 치안이니 하는 이름으로 경찰이 등장하여 최루탄을 쏘고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연행 구속하는 폭력이 제3 폭력이다. 이에 대하여 돌맹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폭력이 제4폭력이다. 과연 어느것이 진짜 폭력인가? 최루탄, 페퍼포그, 경찰곤봉, 방패등이 더 무서운 폭력이 아닌가? 지금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을 폭력단체라고 탄압하고 있다. 6기 한총련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다. 지난번 8.15 때 한총련이 서울대에서 통일행사를 할 때 돌맹이를 쓰지않고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물대포와 최루액, 최루가스를 난사하며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 한총련은 폭력포기 선언을 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것을 믿지않고 학생들의 폭력을 촉발하려는 듯이 덤비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총련을 해체하라는 것은 모든 대학의 학생회를 해체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 정권은 한총련 해체가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고 학생들에게 한총련 탈퇴공작을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단죄하는 것을 보고" 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정권의 한총련 탈퇴공작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무원인 부모에게 직장을 잃을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 부모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의원인 자식이 빨갱이라고 소문을 내는 경우, 대의원의 여동생이 자취하는 곳에 새벽에 찾아와 오빠가 있는 곳을 대라며 은근히 수치심을 자극하며 협박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박을 견디다 못해 농약병을 들고와 자식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농약을 먹겠다고하여 탈퇴서를 쓰고, 칼을 들고와 같이 죽자는 아버지에게 끌려가 탈퇴서를 쓰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온갖 탈퇴 공작으로도 한총련은 해체되지 않는다. 한총련은 백만대학생들의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이며 자주적인 대중조직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한총련을 해체하라는 것은 모든 대학의 학생회를 해체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민족의 동량인 대학생들을 죽이는 행위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단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나라의 모든 젊은 대학생들, 지성인들, 내일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총련은 대학생들로부터 민주적인 적법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일종의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 사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을 이적단체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선구자들이고 민족화해, 평화통일의 역군들이고 이 시대의 영웅들이다. 이들은 내일의 우리 민족의 주인들이고 우리 조국의 역사를 어깨에 메고갈 주인들이다.

김영삼정권 시절에 부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 한총련은 이적단체일 수 없다. 정권이 바뀐 지금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이적규정을 철회할 것을 김대중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총련과 대화하고 학생운동의 대중적인 발전을 위해 그 활동의 합법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 민족의 미래를 육성하는 참다운 지도자의 길이다.

# 준법서약서와 전향 그 종이 한 장의 의미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을 발췌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반민주 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복원을 늦출 수는 없다.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그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박장관은 "건국 50돌 기념 8.15특사와 관련해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등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이러한 준법서약서제도가 전향제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반면 언론은 대체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준법서약제도는 전향제도를 대체하여 이 나라의 양심수의 석방기준, 형기기준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이것은 과거 악명이 높은 전향제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폐지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한 준법서약서는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1930년대의 전향제도에서부터 1998년의 준법서약제도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경로가 이토록 험난하고 더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50년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김대중정부, 독재의 희생물로서 수난의 대명사였던 민주화운동과 야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국민의 정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다니던 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양심수에게 준법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종이 한 장에,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 하나 쓰는 것이 뭔데 이 난리냐고 아마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바로 그 쉬운 짓을 하지 않아 수십년을 버틴 사람인데 이들에게 그 종이 한 장, 그 말 한마디가 얼마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고도 내주었던 것이 노태우, 김영삼 정부였는데 최고의 민주주의 정부라는 이 '국민의 정부'하에서 그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보내 줄 수 없다는 위협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준법서약서 철회!

전향제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창작품이다. 1930년대 일제의 군국주의 강화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 1936년 제령 제16호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출옥, 형집행 종료가 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상활동을 단속하고 감시하는데 활용하였다.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의 7개소에 보호관찰소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향하지 않은 자들을 이른바 사상범이라고 규정하여 보호관찰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전향의 기준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에 대한 조사방법의 건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이에 따르면 "국체변혁사상, 혁명사상을 방기했는가 여부"였으나 전시과소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정신을 체득·실천하기에 이르는 것을 전향의 최종단계로 삼았다.

이러한 일제하의 악독한 법제도가 독립된 대한민국의 한 법질서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좌익들에 대하여 보도연맹을 조직하고 그 가입을 강제하고 사상적 전향을 시도하였다. 1956년에는 국가보안법 파동 이후 국가관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적 전향이 시행되었고 70년대 초반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어서 사회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감옥안에는 전향전담기구가 만들어져 각종 테러를 통해 전향이 강제되었다. 온갖 차별대우와 가혹행위가 이어져 비전향자들은 '곰징역'을 살아야 했다. 1980년대 이후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 시국사범으로서의 장기수가 양산되면서 그 이전의 남과간첩 등 좌익 장기수들의 전향공작 실패가 함께 알려졌다. 전향제도에 대한 비판과 중단의 요구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1998년 7월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준법서약제도가 과연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가족들이나 외부인사들에게 보내온 서한 중에서 준법서약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모아보았다.

① "면회시간 내내 그 놈의 서약서 문제로 갑론을박, 티격태격, 아웅다웅 하느라고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했거든요. 빛나던 청춘 다 보내고 열네 해째 갇혀지내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줄 잘 알면서도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순 없다'고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지킴기'를 통하여 세상의 자유를 넓히고 만인의 자유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인권운동가로 자칭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서약서와 타협할 수 있겠어요. - - - 왜 제가 서약서를 안쓰고 그냥 갇혀 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게워내고 심사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그 절대적인 자유를 저더러 포기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 - - 차리라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것이 제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② "전 요즘의 서약서 논쟁을 바라보며 고등학교시절의 자율학습이란 걸 떠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라는 자율학습에 왜 그리 조건은 많았는지, 지정된 좌석에,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던 그 분위기 하며 - - . 허용보다는 제한과 한정 의 논리들이 저를 꼭꼭 감

준법서약서 철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율학습이란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안에 들어가지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자율은 '알아서' 라는 것에 그 생명이 있지요. 조건있는 자율은 타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건 이미 타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자율의 가면을 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③ "이번 8.15 특사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기수 선생님 17명이 있는데 준법서약서 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만 바꾼 전향서입니다. 역대 정권도 준법서약서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50년만에 정권교체 되었다고 하면서 서약서를 받고서야 석방하겠다는 발상이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북쪽이 고향인 장기수들은 서약서를 쓰면 통일이 되어도 고향에 못가게 하는 고약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처사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이 언급들을 보면 대체로 현재 옥중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향제도와 별다른 것이 없으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준법서약서가 특히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침묵의 자유란 '자기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 또는 사상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써 인정되는 자유이다.

침묵의 자유는 물론 사실에 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증언의 거부나 취재원의 비익권이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다만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정치상의 신념이나 세계관과 밀접하게 결부된 것일 때에는 침묵의 자유에 포함된다. 침묵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인 양심, 또는 정치적 신념, 세계관 등과 같은 사상 또는 양심 및 사상과 결부된 사실이다. 준법서약서는 단순한 사실이나 기술적 지식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국가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신념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백히 양심의 자유 및 침묵의 자유가 보호하는 대상에 속한다.

또한 준법서약서는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외적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양심의 추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십자가 밝기, 충성선서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양심의 결정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양심상의 결정은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양심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과거 없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적어도 그것이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한다. 만약 내심의 양심조차 처벌이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가공할 상황을 상상해 보라. 아마도 내심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심사받고 수사받아야 하며 자신의 일기와 증언거림마저 안전을 보장받

준법서약서 철회!

지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중세시대의 마녀 재판이나 상호간의 의심과 밀고에 의해 공포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동물농장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준법서약서와 전향서는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일부에서는 전향서는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임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단순히 법질서를 잘 지켰다는 각서에 다름아니니 큰 진전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가지 서면의 차이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그 남용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첫째,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간에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향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준법서약서는 그러한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고 있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존중하고 그 법질서를 지킬 것을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심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전향서라는 이름만으로 양심의 강제를 하지는 않았다. 각서, 생활계획서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향과 사상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준법서약서 역시 사실상의 전향과 다를 것이 없다. 그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신이 지지하던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하여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 사범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향서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단체들이 전향제도의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넷째,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는 다같이 개인사에 대한 최소개입의 원칙, 상대적 다양성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는 서구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인 반면 개인의 사상과 신념까지 국가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 국적 국가주의와 봉건적 관료주의의 소산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상에까지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실재는 독재옹호론으로 흐르고만 역사성을 지닌 이론인 것이다. 더구나 내심의 자유까지 침범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유린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향제와 준법서약서는 끊임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심사하고 국가가 동의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다짐을 받아두어야만 안심하는 국가주의자들의 반민주주의적 사고에 다름아니다.

양심수는 기본적으로 지난 군사독재시대와 그 영향이 잔존하던 전환기적 시대에 양산된 군사독재와 악법시대의 유산이다.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악법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온전한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판받지 못했던 시대의 희생물이었다. 새로운 정부가 과거의 군사독재 또는 그 영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유사권위주의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과거 정부하에서 만들어진 양심수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가 내세운 전향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대신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양심수들이 과거에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법을 지킬 가능성이 적으니 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것이다.

### 준법서약서 철회!

오늘날 석방을 요청하고 있는 장기수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북쪽에서 납파된 공작원으로 간첩죄를 적용받은 '초장기수'이고 둘째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당국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조작간첩'이고 셋째는 학생, 노동자 등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조직적 사건에 휘말려 장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이다. 세 유형의 장기수들은 각자 그 성격이 다르고 국민들의 인식도 다르다. 그러나 납파공작원을 조차도 납파즉시 체포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다가 이미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할 정도로 장기형을 복역한 상태여서 더 이상 구금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둘째, 셋째의 경우는 심각한 고문이 개재되어 사건이 조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적법절차가 유린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공개 재판, 변호인 없는 재판, 정보요원의 참석하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에게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는 형량은 구체적 범죄사실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내려지는 형량에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양심수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독재체제와 저항하는 과정에서 조직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장기수들은 대체로 오랜 복역으로 연로함과 동시에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이미 사회적 기반이 없어져 석방된다고 하여 어떠한 반국가적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오랜 격리와 그동안의 큰 사회적 변동으로 이들은 사회복귀와 단순한 생계확보조차 힘든 실정이라서 이들의 석방이 어떠한 사회질서 교란요소가 된다거나 국가위해적 요소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다시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이중의 폭력이며 비인도적 억압에 다름 아니다.

큰 길을 두고 '개구멍'을 통해 나올 수는 없다. 전향제도이든 준법서약제도이든 그것은 인간내면의 자유에 대한 침탈행위이다. 인간의 내면세계까지 침탈하여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사고방식은 왕조시대와 독재시대의 유물이다. 냉전이 끝나고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그러한 유물이 다른 형태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가 들쭉처럼 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언명해 왔다. 많은 인권정책이 공약으로 담겨졌으며 자신의 험난한 정치적 여정과 함께 평가받아 국제적 인권상까지 수상하였다. 김대통령이 수많은 세월을 인고끝에서도 그 한 장의 종이조각에 서명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되지 못한채 수십년의 세월을 살아온 장기수와 양심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정부의 인권정책은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게 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김대통령과 박장관의 이번 준법서약서 방침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많은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달래는 방편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와 충정이 담겨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인권의 온전한 복원에는 절충이 있을 수 없다. 보수세력을 의식하여 과거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승계한 준법서약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양심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반민주주의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복원을 늦출 수는 없다. 어느 양심수가 지적한 것처럼 큰 길을 두고 구태여 개구멍을 통해 나오려는 요구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수배해제

## "사진으로 보는 농성"



촬영: 심명식(사건) 외 여러 기자분들..



■ 시지오로 가는 농성



# 농·성·일·지

## 8월

8월 9일

많은 염려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조계사 진입 성공. 막상 쉽게는 들어왔으나 아무 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와 난감한 가운데 전국연합, 민가협, 불교계, 동국대 등에 전화로 도움 청함. 천막이 없어서 대응전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다. 그간 보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어 너무나 반갑게 사람들을 맞았다. 그렇게 하루는 금새 지나갔다. 바야흐로 정치 수배 해제 투쟁의 닳을 올린 것이다.

8월 10일

조계사에서 우리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가졌으나 그것은 기우였다. 불교계 내의 진보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총무원과 조계사에서는 농성을 승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오전에 농성 시작과 요구안을 중심으로 8.15 맞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안정적인 동지가 없으니 하루 빨리 동지를 틀어야겠다.

8월 11일

천막을 치는 과정에서 신도회와 문제가 생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동지를 안정적으로 틀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겠다. 예불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조계사 내에서 착실한 생활을 가져가려고 결의함. 전국의 수배자 명단을 파악하고 국민회의 원내 총무인 한화갑과 진관 스님,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님, 오종렬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전 의장님의 면담을 준비.



8월 12일

한화갑과의 면담 속에서 수배해제 문제 요구했으나 좋은 답을 얻지 못함. 수배자 가족들 대거 상경. 울먹이는 부모님들과 몇 년만의 눈물어린 만남을 가짐. 수배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임. 자식들의 심경을 이해하면서 이전에 가지셨던 염려와 우려를 조금씩 씻어나감.



8월 13일

경찰들의 사찰이 계속되고 위협이 진행되어 이동시 2-3인이 함께 이동, 호루라기 착용. 총무원 지하 식당에서 해결하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 진행.

8월 14일

드디어 한겨레 신문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5단 광고가 나왔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8월 15일

부정비리 주범과 헌정 파괴범을 주인공으로 하고 양심수를 들러리로 만든 기만적 사면에 끊어 오르는 분노를 느낌. 통신에 비판성명서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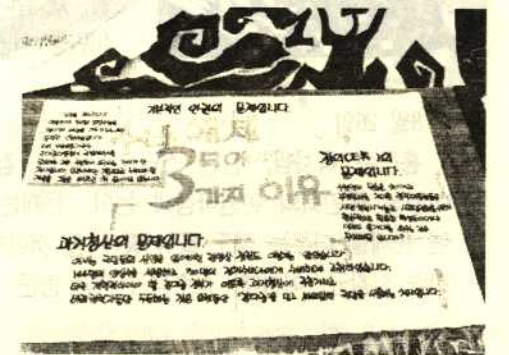
8월 17일

8.15 출소자들의 환영대회를 가짐(동지를 얻는 마음으로). 협상에 관련해서는 정치적, 법리적 대응을 지혜롭게 고민한다.

2차시기 다양한 투쟁 방식으로 수배해제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22일로 상정, 실질적 준비에 들어감.

8월 19일

협상 조건으로 준법서약서 내지 반성문, 한총련에 대한 비판 입장, 선별처리, 약속 이행을 사전에 보장할 수 없다. 우리의 입장은 93년에 준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램. 형식적으로는 자진출두할 수 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전국 수배자들의 대표성을 띄고 활동하자



8월 20일

22일 집회 조직화로 바쁨, 사회단체 초청, 단위 후원회 조직, 그러면서 탄원서 작성. 사찰내에서의 생활 안정화되어감. 의욕 넘치게 집회를 조직하고 있음.





8월 22일

조계사에서 첫 정치집회. 스님들과 신도분들의 정서에 맞는 집회를 가지자. 우리의 내용이 주되게 다루어지기보다 양심수 문제 전반의 얘기가 많이 쏟아짐.

8월 23일

집회 후속 작업 계속 연락 드림. 수배자가 더 결합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한다.



8월 24일

정치수배 해제를 염원하면서 108 용맹정진 시작. 농성 생활을 더욱 짜임 있게 가져가기 위한 생활 계획을 수립. 생활에 있어 진지함을 더하고 필요없는 농담을 줄이자. 서로를 잘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식, 유시춘, 오영식, 김재용 방문, 대화창구 개설

8월 25일

조계사 내에서 서명운동 진행. 이제 가을 준비를 해야겠다. 9월 13일 문화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 협상을 과거청산 인권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하나 한총련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도 합법적 공간을 넓히면서 투쟁을 확대해가자. 10만명 서명운동을 진공적으로 진행하자.

8월 26일

홍근수 목사님, 진관 스님, 오영식, 김재용, 이명식 국민회의 인권국장과 논의. 문제는 한총련 문제를 다루는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범민련 신창균, 이천재, 강순정 선생님 방문

8월 27일

인천대 춘호 결합. 추가 결합자를 생각해서 당분간 보안 유지. 독서토론회. 한총련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때문에 고민이 많아짐.



8월 28일

준법 서약서 토론. 문화제 기획초안 나옴. 대화구도 탄원서, 대책위 구성, 진관스님, 오영식, 이인영, 김재용, 홍근수, 이덕우, 류시춘, 이명식, 김승훈, 함세웅. 반성문과 준법서약서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 요구. 협상 난항. 대중투쟁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닌가? 밤마다 돌아가며 불침번, 현대중기 노동자 분들이 규찰을 서주심.



8월 31일

문화제 기획회의 불교계 실무자들과 함께, 전대협 동우회 선배들과의 간담회. 본격적으로 후원회 조직화, 아침마다 국선도를 본격적으로 진행, 긴장된 생활이 필요하다.

## 9월

9월 1일

춘호의 살아온 이야기 듣다, 제주대 원고를 쓰다.



9월 2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식에서 농성단에서 참가 단 과전

총무 스님 만나 문화제 관련 말씀 드림. 불교계와 문화제 준비.



9월 4일

대책위 어르신들 박상천, 이기문, 공안부장 만나 수배해제에 대한 입장 확인, 시인 섭외 중, 대학 언론사에 우리 문제 다룸

9월 5일

5만부 신문 인쇄, 시집 관련 출판사 만나기

9월 6일

스님계 편지, 전진새날 영상제작, 공대위 창립대회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

9월 7일

날씨 좀 쌀쌀, 감옥 동지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다. 바쁘다.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9월 8일

문화제 관련 초청장 들고 불교단체 방문, 조계사 내에 양해 대자보 붙임

9월 9일

영상패 방문, 수배자 부모님들 연락처 확인



9월 10일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방문. 우리 문제에 도움 줄 것을 요청. 자필 서명을 함.

9월 11일

준법서약서에 대한 토론을 가짐. (수배자인 우리에게는 준법서약서가 해당사항이 아니다. 준법서약서에 대한 토론-원칙적으로 사상헌정제도의 연장이다.) 막바지 실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12일

동국대 주점 100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룸. 어머니들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다. 성대하게 치뤄져서 기쁘다.

13일

문화제 800여명이 와서 성공적으로 치름. 눈물로 호소한 발원문과 촛불행진이 좋았다. 정신없이 바쁘다. 힘껏 일한 후의 피곤함이란 얼마나 좋은가?



14일

농민대회 서명 준비로 바쁘다. 성과를 중심으로 중간 총회를 잘하자. 향후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들고 싸우자.

16일

전철연 지지방문, 청와대 불자회 관련 선전전, 시집 배포, 준비형 시 올림. 대책위 경과보고 대검 준법, 한총련 달퇴, 선별처리 국민회의 준법서약 일괄처리



18일

오랜만의 휴식날이었으나 열사 천도재 관계로 바쁨. 열사 부모님 방문. 331분의 열사에 대해 생각해본 날.

19일

동국대 후배들과의 간담회, 후배들에게 나는 어떤 삶의 길을 보여줄 것인가?

20일

유병문 시집 서점 배포,

21일

한총련과 서명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함. 규율문제를 다시금 바로 잡기로 결의함. 마음을 모으는 조직생활을 하자.

22일

날씨 꽤 쌀쌀, 김종맹 목사님 만남.

23일

공추위 곽노현 교수님과 통화

24일

검찰 3과장 면담, 민가협 집회- 한학협 창립대회, 민권 토론회 참가

26일

명동성당 농성단과 통화, 명동 지지성명, 국민회의 연등회 선전전,

27일

겨울 준비를 위해 보온천막 완성



28일

2580 연락, 불교계와 인권법 토론회 논의

29일

인권운동 사랑방 김삼석 선배 만나 인권 운동 얘기나눔

30일

귀향계획 있는 학교에 추석 유인물 보내기, 사회 단체와 어르신들께 추석인사



# 10월

10월 1일  
전망회의 공추위 문화제 기획안 보냄- 본격적인 연대활동 그 지평을 넓히자

10월 2일  
레이디 경향 취재,  
장기 투쟁에 대한 투쟁 기획 제출, 추석인사

4일  
금재성 선생님 49재 관계로 장기수 어르신들 방문

10월 5일  
차레 지냄. 전부치기. 선물 많이 들어옴  
주변 사람들 선물 챙김

7일  
강위원 의장 어머니 방문, 60일째 108배 시간 조정 05시 30분

9일  
사회부장 스님 면담 추진, 16일 투쟁 삭발 결의  
강위원 의장 편지 토론



10일  
조직생활 토론, 승리하는 투쟁에서 자기 분공, 동지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농성장을 교양과 토론의 장으로, 잠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책읽기, 인생전망과 사색을 많이 하자.

12일  
불교계 면담 요청서 제출, 16일, 31일 관련 난항, 명동 공동투쟁

13일  
감옥에서 온 편지 답장



15일  
외대 영상단 촬영, 집회 준비 분주,

16일  
집회 가짐. 삭발, 바람에 쉬 흔들리는 머리칼같은 사람과 여러 마음을 자른다. 눈물, 분노와 서러움. 수가협을 결성함.

17일  
한겨레 신문에 광고나다.  
시사토론, 명언해설 좋은 것 발췌하자

18일

20일 유가협에서 청와대 방문시 자료 제출

21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자료 제출

26일  
박세길 위원장님과 방문 환담

27일  
스웨덴 집권당인 시민당 청년 위원회 의장과 국제국장 방문하여 한국학생운동 관련 취재와 토론

28일  
전국연합 집행위원장님 방문



29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참가, 경향신문 매거진 X 취재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님, 광주전남 연합 사무국장님 방문  
양심수 없는 나라에 보낼 유인물 만들.

31일  
수가협 부모님 '양심수 없는 나라' 헌양대 공연, 피켓 들고 참가. 농성단 활동 비디오로 상영됨.  
박세길 위원장님과 전선운동에 대한 강의 토론 벌임



# 11월



11월 1일  
자료집 원고 마감. 현대중기 산업 노동자분들과의 간담회

11월 2일  
15일 문화제 공연 연출자 섭외  
한겨레 신문 연속 광고 시작

11월 3일  
학생의 날, 한총련 방북대표 황선 귀환. 농성단 단합대회  
한겨레 신문 연속 광고 (2) 양군모  
국회 법사위에 우리 문제 다루질 수 있도록 작업



11월 4일  
오전 인권기구 설치와 인권법 관련 시사토론. 문화제 기획안 분공과 조직화 세부안 작성. 양군모와 문화제 논의

11월 5일  
민가협 목요집회, 유인물, 프로필을 들고 참여, 수배생활글 낭독(숙희). 문화제 관련 대학 언론 방에 취재요청서 보냄. 문화제 초청장 통신에 올림. 전국연합 실무자와 연출자, 양군모 농성단과 문화제 기획회의 가짐.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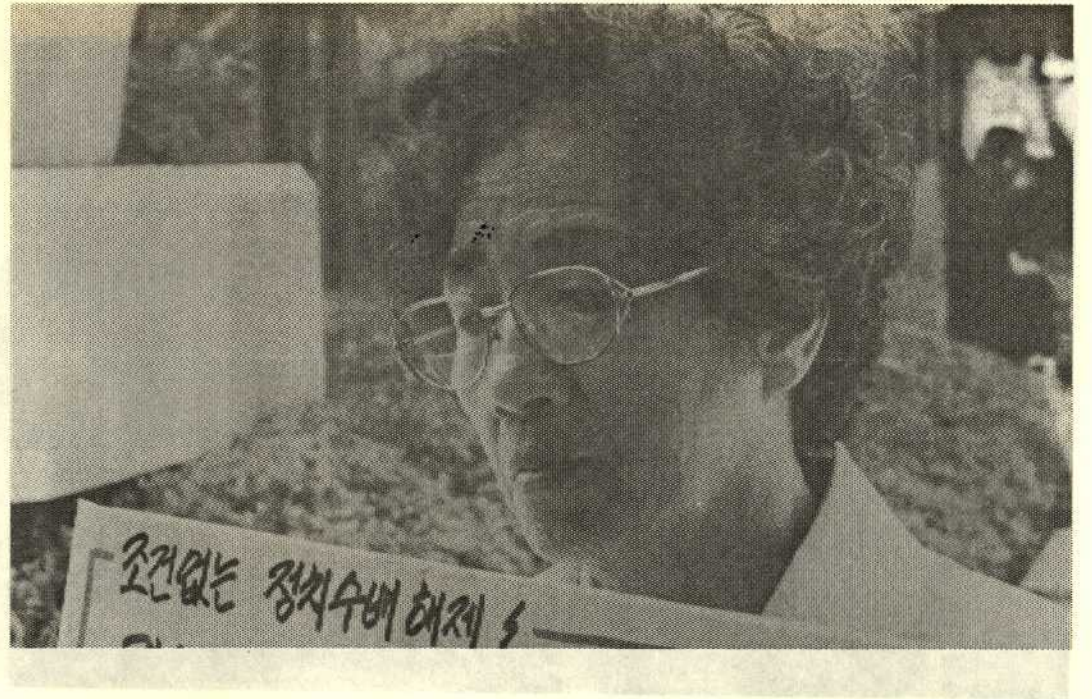
▲ 항상 웃음 잃지 않는 김현곤  
▼ 2년만에 상봉한 부자



바깥 세상과의 만남.....

▲ 엽동렬

▼ 유병문



▲ 몸은 안팎으로 나뉘어 있지  
수배해제를 향한 마음은 하나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 어머니들의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파도같은 힘이 됩니다.



▲ 어머니의 웃음과 눈물...  
 수배해제로 답하겠습니다!

# 조계사 농성단



## 오창규 (吳昌圭) -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

67년 광주 출생  
 86년 전남대 심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 총 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현 전남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

## 김현곤 (金鉉坤)

69년 부산 출생  
 87년 서울대 농화학과 입학  
 97년 한총련 연대사업위원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유병문 (兪炳紋)

72년 경남 거제 출생  
 92년 동국대 불교학과 입학  
 96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엽동렬 (葉東烈)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건국대 농학과 입학  
 97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



## 김성숙 (金晟夙)

72년 전남 장성 출생  
 91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입학  
 93년 전남대학신문사 편집장  
 97년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 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 이영수 (李泳洙)

74년 경북 영천 출생  
 94년 서울대 농촌사회교육과 입학  
 97년 서울농대 부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김재돈 (金載敦)

75년 광주 출생  
 94년 서울대 농기계과 입학  
 97년 서울 농대 회장, 경기남부총련 의장 권한대행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홍춘호 (洪春鎬)

75년 충북단양 출생  
 94년 인천대 국문과 입학  
 97년 인천대 인문대 회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이창희

69년 서울 출생  
 88년 단국대 경제학과 입학  
 9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  
 97년 5기 한총련 정책위원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명단 (총 67명 -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 ▲ 서/울/지/역 유병문·김명희(동국대) 배정기(경희대) 송현석(한양대) 이창희(단국대) 양승미(상명대) 김희정(경기대) 공은희(덕성여대) 최선희(성신여대) 류순·신창현(고려대) 김효재(서강대) 엽동렬·최원석·김낙환·김영란·방기형(건국대) 신동훈
- ▲ 경/기/인/천/지/역 김현곤·김재돈·이영수(서울농대) 홍창훈·이경수·홍춘호(인천대) 신은경·박대성·이미선·전현욱·한유진(경원대) 이병언(경희대) 박재철·김대성(용인외대) 공혁준(강남대) 김동우·김종호(인하대)
- ▲ 광/주/전/남/지/역 오창규·진재영·김성숙(전남대) 최태진·윤민호·고경·서일권(조선대) 유영업(목포대) 송성주·고재한·장귀영·김은정(동신대) 송승훈(목포전문대) 김용환(순천대)
- ▲ 부/산/경/남/지/역 정재원·최현석(동아대) 손해연(울산대) 박준형(경남대) 윤용웅(인제대) 이장인(동명전문대) 이현주(부산여전) 김민익(청원대) 윤동영(경상대)
- ▲ 대/구/경/북/지/역 이성훈·이대동·최윤진·권륜영(경북대) 이윤구(경산대)
- ▲ 충/청/지/역 노형일(한남대) 이재춘(충남대) 송용한(고대) 김혜란(청주대)

양군모 농성단

# 수배, 그리고 감옥... 다시 군대로!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하라!!

양/군/모 한 양군모 회원의 아내의 수기를 발췌하여

97년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십년씩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하는 생각을 하면서 2심 재판을 기다렸다. 감옥은 매우 추운 모양이었다. 두툼한 면T를 입었는데도 면회갈 때마다 그의 얼굴은 파리했다. 그 즈음 그는 징역살이보다 군대문제를 오히려 고민하고 있었다. 병역법이 개정된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그의 말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단일형기가 2년이 넘어야만 군 소집이 면제되고 집행유예자는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후학상태에 있었고 비록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군대에 끌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  
이들에게 군대는 감옥과 함께 그들의 청춘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어두운 시절의 푸른 옷이다. 그들이 입대하여 제대를 하는 3년의 시간은 양심수라는 꼬리표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사회에 그나마 내린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센 바람이다. 누가 이들에게 이들의 청춘을 보상해 줄 것인가. 골목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한밤중 바람에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 깨어나는 불안한 수배생활. 방안에 떠놓은 물이 짹짹 얼어붙는 한겨울을 체온하나로 견디며 외로움과 그리움에 몸부림치야 했던 감옥살이. 그 모진 고초를 겪고 이제 자유의 햇살을 보기 시작한 이들의 꽃다운 20대는 그 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이제 군대에서 송두리째 저물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암울했던 시절, 지금은 다들 자유롭게 얘기하는 민주와 통일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현재의 국민의 정부는 적어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어쩌면 암울했던 시대의 마지막 희생자였을 그들은 이제 햇살 가득한 거리를 마음껏 걸을 수 있어야 한다.

.....  
남편과 마주앉아 아침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만 국그릇에 눈물을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밥상을 마주할 날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는다. 남편은 여자들이 임신하면 감정이 예민해 진대더니 당신도 그런가 보다고 짐짓 태연해 하지만 그 속마음이야 얼마나 첩첩산중이라.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내년 푸르른 대지에 씨앗을 뿌리고 싶다. 김매고 거름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추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태어날 우리아기가 아파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크게 하고 싶지는 않다.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이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혼자 잘살겠다고 욕심부린 일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모두가 잘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리니 누가 나의 이 작은 소망하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 양군모란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적인 탄압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청년양심수로 출소 후 군입대로 인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는 수많은 국민과 청년학생들의 투쟁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여 실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상처 치유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이미 문민 독재 정권에 의해 전과지라는 멍에를 쓰고 짧은 시절을 빼앗겨야 했던 청년들에게 군복무라는 억압적 부담을 통해 사회 진출의 앞길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의 수정자 관련 조항이 실행 2년 이상인 자에 대해 서면 병역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국 관련 학생활동으로 2년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후 또다시 군대에 가야만 될 처지에 놓인 500여 청년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학생 양심수들은 김영삼정권이 탄압으로 옥죄어왔던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민주와 통일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이 죄라면 정권교체는 쿠데타 내지 국가전복 이상의 의미는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수배와 구속, 수형 생활로 인해 이미 입영의 적령기를 넘기고 학업까지 뒤쳐진 상태에서 군복무하게 된다면 제대 후 나이가 서른이 넘어 취업, 사회활동, 결혼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됩니다. 더구나 과거 정권들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청년학생을 사회와 격리시키려는 목적 하에 집권 초기마다 무자위적으로 개정하여 왔고 실제로 공안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양군모는 양심수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와 전원 석방, 서면복귀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청년학생의 장기적 사회격리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온 현행 병역법 시행령을 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소야대 국회에 의해 개정되었던 88년 8월 1일자 개정안의 내용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 양/군/모 투쟁 일지

97년 15대 대선을 전후하여 2기 양군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역별로 주체를 발굴하고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면서 전국조직으로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1월 14일에 한겨레신문 광고를 썼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개정요구안을 준비하고, 전체 명단이 대략 파악되면서 양심수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보장을 촉구하는 개인 탄원서를 조직, 청와대에 100여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소관부처인 병무청으로 탄원의 내용이 이관되면서 불가 입장이 양군모에 통보되었다. 이에 양군모는 정식 입법절차를 밟아 법개정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국회청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4월에 양군모 회원의 2차 탄원서를 발송하고, 채차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병무청은 여전히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이때부터 병무청에 대한 항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5월 병무청 징모국장 면담을 통해 다시 양군모의 요구를 전달했고, 이때부터 6월까지 대학교수님과 사회단체 대표 인사의 촉구 탄원서를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더불어 청원 성사를 위한 국회사업 돌입. 7월 교수님과 사회단체 대표 분들의 탄원서를 모아 국방부와 국민회의에 발송. 대중적 공분과 투쟁의지를 다지기 위해 7월 11일 일일주점을 진행했다.

8월 청원안의 국회상정을 위해 국민회의 출근투쟁, 국방부 항의 방문을 병행 전개하면서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을 통해 당정 협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9월 4일 남궁진의원을 통한 당정 협의의 안건 상정으로 1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방부측이 행정편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논리를 펼치며 반대하여 논의가 무기한 유보되었다. 국회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양군모를 무산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징집영장을 남발. 10월 22일 대전 중앙 병무청을 항의방문하여 5명의 징집영장을 반납하였고, 동시에 회원 86명의 부당징집 반대 연대서명을 제출하였다.

10월 23일 부당 징집 철회와 청년 양심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11월 21일 국민회의앞에서 열리는 "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양심수 문제 완전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를 타 사회단체들과 공동주최하는 등 11월-12월 광범위하게 펼쳐질 인권투쟁의 중심에서 청년양심수의 당당함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정부하에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의 정치적 탄압으로 군입영의 적정연령을 넘겨버린 양심수들의 모임으로 군문제 해결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을 위해 지난 2월에 활동을 시작하였고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 탄원이 제기 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와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성공하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형평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에 있어서 형평성이라 함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것이 아닌 입영대상자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특권적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 청년양심수들은 오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나이가 서른에 가깝거나 넘어서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취업적령기를 지난 나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게 됩니다. 김영삼정권에 의해 부당한 정치적 억압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회적 생존의 권리마저 '합법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 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양심수 출신에게 군생활이 계속되는 정치적 사찰과 압박의 공간으로 되고 있는 현실은 군징집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영삼정권 시절에도 군입영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구속수감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양심수출신에 대한 정치사찰과 조직사건 조작을 통한 재구속수감이 계속되는 한, 군대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아닌 거대한 억압의 감옥일 것입니다.

하기에 저희는 청년양심수의 군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부당징집을 단호히 거부하며 청년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10월 13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대전 중앙병무청에 5명의 군징집영장을 반납하였고 앞으로 발부되는 영장도 계속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군모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10월 23일부터 조계사를 근거지로 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재수감의 위험마저 각오한 채 영장을 반납하고 조계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양군모의 투쟁에 민주와 인권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국방부, 병무청은 양군모 회원에 대한 부당징집을 즉각 중단하라!
- ▶군을 통한 사회적리 중단하고 청년양심수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하라!
- ▶청년양심수의 장기적 사회적리 조장하는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하라!
- ▶계속되는 군내 정치사찰, 조직사건 조작 즉각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 신념과 승리확신으로 내달리는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 힘

하게 불어대는 바람에 천막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난 밤을 보냈다. 험한 날씨, 그리고 무언가 역경이 몰아친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레 지난 농성기간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어느 곳에 임하든 주체의 자세에 따라 상황은 변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성에 들어온 의의를 다시금 새겨본다. 양심을 접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감옥 안에 남겨진 양심수들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한 시기다. 시대의 요구를 뒤로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 시기는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주체가 결의하여 투쟁을 일구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시대의 요구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민중의 역동적 힘을 믿고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넘친다고 해서 투쟁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실제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면서도 참여와 투쟁포기를 강요하여 민중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애국하는, 투쟁하는 세력을 뿌리로부터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다고 할 때 머뭇거릴 수 없는 것이다. 현 시기는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동주체들은 투쟁의 각을 명확히 세우고 주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난관을 돌파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공격정신! 정면돌파!

운동주체들은 이와 같은 투쟁각오만이 개량국면과 같은 난관을 돌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응식의 수동적 투쟁이 아닌 투쟁을 계획하고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법서약제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단순히 정권이 갈자루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칼자루는 민중이 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주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쟁에 임하면서 투쟁의 불길을 당기고자



범민련, 장기수 선생님, 전국연합, 서울연합, 인천연합, 경기 남부연합, 경기동부연합, 민가협, 유가협, 민주노총,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인권 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추위, 민족회의, 한학 협, 수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맞이 7천만겨레모임, 전 농, 전여농, 전교조, 전철연, 전노련, 민변, 민교협, 국민승리 21, 정치연대, 청년진보당, 전일노협,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NCC인권 위원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경실련,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평택농민회, 나주농민약국, 안양사랑 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동부지역 일하는 사람들의 청년회, 서 청협, 4월혁명회, 진보정치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족문학작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 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 는 사람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북미주 조국통일 동 포회의, 전불련, 실천승가회, 대불련, 세불교 전국승가회, 전대 협동우회, 한총련의장단, 한원협(한국대학원학생회협의회), 국 제엠네스티, 스웨덴 사민당(현 집권당) 청년위원회, 일본 미군 기지 반환운동 본부

## 조계사, 그 108일간의 기록

---

펴낸 곳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농성단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내 수배해제 농성단  
전 화 02) 732-6880~1, 017-205-8518  
PC통신 나우누리·참세상 - 수배해제, 천리안 - ncyc93  
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freebb>  
펴낸 날 98년 11월 24일 (농성 108일째)  
은행구좌 광주은행 074-121-288961 (오창규)

---